

第 2 回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日 時 : 1991年 7月 22日 10 : 00

場 所 : 城北區議會 小會議室

議事 日程

1. 91年度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審議

附議된 案件

1. 幹事報告 1 面
 2. 委員長人事 1 面
 3. 91年度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中一般行政分野와社會福祉分野에 대한豫算案審議 2 面

○議事係長 林洛吉 : 지금으로부터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전원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委員長 申宗鉉 : 감사합니다. 성원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직위원 17명중 11명이 참석하셨으므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개의를 하겠습니다.

황호산 간사님께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1. 幹事報告

○幹事 黃鎬山 : 안녕하십니까? 황호산 간사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19일 성북구의회 본회의에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을 7월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의결됨에 따라 지난 19일과 20일에 세차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의 제1차 회의에서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분야 예산안 심의이며 7월22일 제2차 회의에서는 지역개발 및 의회비 그리고 기타분야에 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7월24일 개최되는 제3차 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의 과정이 30년만에 가까스로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를 확고하고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 그리고 원만한 회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2. 委員長人事

○委員長 申宗鉉 : 모든 관계는 자유스럽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앉아서 하겠습

니다.

이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존경하는 김현중 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관계관님들에게 감사를 또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뿐만 아니라 월말이 다가오니까 여러가지 세무관계서부터 월말 일이 너무나 분주하신 관계가 되어서 오늘 많이 참석을 해주셨고 참석을 못하신 위원님들께서 아마 오전 오후로 참석하실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황호산 간사께서 보고내용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김현중 국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관계관님들을 모시기까지 저희가 사실은 간담회를 네번 거쳤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위원활동도 해봤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오늘 그야말로 우리가 오늘 현시점에 당면한 문제를 감안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자리에 모였고 또 밝고 희망찬 미래를 지향하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국고보조비를 비롯한 우리 성북구 구민 56만이 내신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그동안도 우리 과장님들 예산과 또한 쓰시는 데 잘쓰신걸로 알고 있지만 어차피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다소라도 저희 나름대로 더 잘해보고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모인걸로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도 추가경정예산 관계가 맞물려 들어가니까 마치 우리도 정치적인 현안 문제가 대두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성북구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법 일환책으로 우리 성북구는 성북구 나름대로 독특한 의미와 또한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측면을 봤을때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는 갖추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로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또 노력도 해봤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앉아계신 여러 관계관님들은 그야말로 우리 국가의 봉직과 또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등불 역할을 해주시고 소금 역할을 해주신 여러 관계관님들을 모신 관계는 저희로서는 영광이요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더한층 우리 성북구민은 새로운 발자취가 꼭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것이 우리 성북구 전구민이 갈망하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오늘 제가 여러가지 미숙하고 처음 예결위원회를 여는 이 마당이니까 어려움도 있을것으로 믿습니다.

단 모든 관계를 극복해 가면서 서로 뜻을 음미해 가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서로 질의 응답식으로 토론을 해서 종결을 짓는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관계관님들에게 협조가 있기를 바라면서 두서없이 간단하게 인사를 끝마치겠습니다.

3. 91年度 一般會計歳入歳出追加更正豫算案中 一般行政分野와社會福祉分野에對한豫算案 審議

○委員長 申宗鉉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현중 총무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관님들이 간단한 인사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賢鍾 : 무더운 날씨에 오늘 신중현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각 위원님들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힘에 힘입어서 30년 만에 열리는 지방자치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지방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이 지적해 주시고 심도있는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성북지역 발전을 위한 추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申宗鉉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9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행정분야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관계관님들 중에서 설명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기획예산과장 채병석입니다.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본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으므로 여기서는 시간절약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구 추가경정예산안 69억9천878만8천원 중 기정예산이 624억1천만원이고 이번에 추가예산이 68억8천764만3천원이 기정예산 중에 16억2천935만2천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행정부비는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거기에 보면은 43페이지 일반행정부비가 있습니다.

44페이지 내용을 보면은 일반행정부 기정예산이 275억3천181만4천원 중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8천191만6천원을 경정해서 274억4천999만8천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답변드리기로 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마칠겠습니다.

○委員長 申宗鉉 : 감사합니다. 채병석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청장님과 또 총무국장님을 위시해서 그간 제안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실상 방금도 인사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관님께서 바쁘시고 위원님들도 바쁘신 관여에 있을텐데 우선 우리 김현중 총무국장님한테 우리 위원들께서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마감하고 국장님은 본청으로다가 내려가시는 것이 상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김현중 국장님한테 질의내용 있으시면 우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국장님한테만 우선 질의하는 것입니다.

○金炯九 委員 : 김형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 활동비가 하루에 일비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의 출장비를 보면은 6만원

으로 되어있는데가 있거든요 이게 어떠한 근거에서 이게 책정되었는지, 또 현재 이 산출기초라고 써있는데 이 산출기초가 너무나 빈약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엇을 하든간에 정부 품셈에 의해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물가정보에 의해서 이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적당히 하는 식으로 산출을 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너무나 의아한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우리끼리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곤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정부품셈에 의해서 또 정부가 인정하는 물가정보에 의해서 인건비, 자재비, 출장비는 뭐고 어떻게 되었고 이걸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음에 내일 말씀드릴 것이지만 개발비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개발비도 물론 이걸 다 확실하게 하면은 물론 이게 기밀이 누설되고 다음에 집행을 할때에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너무나 산출근거가 빈약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總務局長 金賢鍾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일비 3만원은 서울시 전체 전국구 전체의 규정지침에 따라서...

○金炯九 委員 : 출장비 같은거 6만원씩 나오느냐...

○總務局長 金賢鍾 : 그것은 예산서에 장기적으로 기재할 수 없고 예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든가 이래서...

○金炯九 委員 : 문제가 된것 같아요.

본회의에서 이런 것이...

○總務局長 金賢鍾 : 그것은 6만원씩으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있으면서 출장이라든가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전체적으로...

○金炯九 委員 : 이걸 국장님께서 잘 대비를 하셔야지고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제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일비나 여비는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어서 일당 3만원이고 저희 공무원들 여비중에 예산서에 보면 6만원 이렇게 월비로 책정되어 있을겁니다.

이것은 저희 여비 조례에 의해서 일당 출장여비가 관내출장여비가 5급이상은 3,500원이고 일당 6급이하는 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20일정도 상시 출장하는 직원들의 경우는 월비로다가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만원 상당이 부분적으로 상시 출장하는 직원들에게는 계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산출기초가 왜 상세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예산서를 저희 본예산서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분량이 두껍습니다.

두껍고 이것을 일일이 다 열거할수가 없어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 성북동길 확장공사에 10억이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품셈표를 기초로 해 가지고 정부 노임단가등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한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제출을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가지고와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金炯九 委員 : 그것이 그렇게해서 현재 87페이지인데 이게 산출근거가 정확하다는 말씀이죠?

300페이지정도는 되어야 할것 같아요.

이것을 붙여서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가지고 논란할 필요없어요.

그런데 이것때문에 2, 3일을 허비를 하고 있거든요.

뭐가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 무엇을 써야했는데 이것이 50만원, 500만원인데 이게 무엇에 쓴것이나 이렇게 현재 논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음에는 이것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붙여주시면 우리가 다 읽어보고 거기에 썼구나

하면 바쁘신 과장님들 오시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다 보고 본회의에서 질문하면 끝납니다.

매일 시간 허비하고...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한테 지난 토요일날 넘겨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거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별도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金炯九 委員 : 여기 산출근거가 대칭이 똑같은데요. 뭐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구체적인 규정이나 그런것은 예산서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좀 어려워서 이렇게 표시해 놓는게 저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宗鉉 :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金知雲 委員 : 중암2동 김지운입니다.

우선 행정행위의 분야에 대해서 속해 되어있는 본인은 일반행정분야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결과 개념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반적인 사항은 30년만에 풀뿌리민주주의다하는 이런 과정에서 예산결산 일반행정분야에 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총무국장한테 우리가 전반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사항에 따라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북구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적에 구청과의 조직관계를 얘기할때 물론 라인과 스태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보는 과정은 아까 여기 김형구위원도 말씀을 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상세하고 이런과정을 구체적으로 저도 동의하면서 우선 예산자제를 포괄적인것은 잘되었습니다.

제가 분석해본결과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한다면 성북의 젊음의 거리축제, 이런것보다는 예산소요가 되었을때에 성북이 문화의 거리라든지 하나의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활체육인의 거리라든지 이런것을 제정할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총괄적으로 자료수집을 해서

이런형태로 기록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그런 예산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성북구전체에 관한 그런 이슈가 될만한 타이틀을 잡아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그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행정행위나 행태가 즉, 대체안이 효력이 발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 구의회가 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예산을 추경할때 이것을 의원들이 3-4일씩 심도있게 열심히 하면서도 지적을 자꾸했을때에 예를들어서 컨설팅맨들이, 행정인들이, 행정공무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태세와 또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동태적으로 변수가 함수관계가 생깁니다. 아까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30년만의 민주주의가 꽃이 피는 과정에서 민·관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구의원들이 하는 행태가 아니냐 이것은 구의원이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발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해 주면서 수용태세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북구에 대한 프로젝트가 일반행정에서 아이디어로스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전반적인 스태프맨인데요, 일반행정분야는 매입을 따져서는 행태를 가지고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성북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는 것이 일반행정의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소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엘리트적인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사우팅 컨트롤되어서 무엇인가 밝은 성북의 미래를 지향하는 이러한 총무국장님이 전반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과장님께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변화에 따라서 생산성 있고 능률적인 행정분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總務局長 金賢鍾 :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구민 여러분이 뽑아주신 의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총무국장으로서 관계직원들과 교육을 할때는 제가 그것을 꼭 강조를 합니다.

경직성 있는 그런 행정자세 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이견을 받아들이고 가능하면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구의회의원 여러분들은 한 동에서 뽑히신 의원들이시지만 국민 전체가 뽑은 구민의,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제가 교육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행정분야에서도 아이디어 같은것을 좀 내고 그래서 전체적인 성북구행정의 발전적인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젊음의거리축제” 그런것은 예를들어서 말씀해 주셨지만 탄 지역에 보면 명동의 축제다, 인사동의 축제다, 대학로에서도 수시로 그러한 여러가지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화와 화합의 마당으로 하기때문에 예를들어서 나중에 이것은 문화공보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까마는 구 지방자치제가 되기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노래를 하나 제정을 해야하고 구가를 마련해야 되겠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성북구에서 특성을 살리려 하다보면 성신여대 주변에 보면 아주 무질서하게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하는데 좀 이것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처음 젊음의 거리축제를 벌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을 알고 발전적으로 젊음의 거리와 더불어서 좀 그러한 성북의 어떠한 새로운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계기로써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의원님들께서 많이 내주시지요.

그래서 좀더 성북구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여러가지 공사도 중요하지만 뭔가 특성있는 행사도 벌인단든가 그래서 성북의 이미지를 높이고 예를들어서 관악구 같은데는 관악철쭉제를 하는데 돈을 많이 안들이더라도 우리 성북에도 미인을 뽑는다든지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무부에서 행정 전파트를 이끌어 가는데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야 된다는 바쁜 일에 쫓기다보니까 여러가지 새로운 착상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돈을 많이 안들여도 그동네의, 성북 전체의 좋은 발전이 될수있는 그런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을 발전적으로 펴가는데 노력할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金甲濟 委員 : 길음3동의 김갑제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원들은 동의 대표도 되면서 구의 대표가 되는것 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대로의 자주 접할 수 있는 기관이 역시 구청, 동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동쪽이 더 자주 접촉을 하게되는데 사실상 제가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은 이미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개 동의 의원님들과 동장님들간에 불화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청장님, 총무국장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정을 하면서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해주셔야 될것입니다. 과거에 보면 동에다 예우지침은 내려갑니다.

그것은 외면적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예우해 줘라"그러나 동이나 동장들이 그렇게 예우해 주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절대 행정부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협조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행정부의 동장들이나 또는 이런 분들이 거기서 의원들을 바로 예우해 줄때에 서로 협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몇개 동에 있는것으로 저는 들었기 때문에 이점을 청장님과우리 총무국장님이 유념하셔서 서로 유기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것을 지도 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總務局長 金賢鍾 : 김갑제 위원님 말씀에 제

가 보충을 드리면 그런 사례가 더러 있을겁니다.

동장은 25명을 발령해 놔서 우리 구의원님들이라든지 동네 유지분들하고 융화가 빨리 안될것 같아서 우리 청장님께서 각동에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12개 동을 다니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을 꼭 참석시키셔서 단합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려 하는데 그런 예우에 대해서 동장들 회의가 있을 때 제가 강조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申宗鉉 :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모든 일을 동분서주 해가면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동 행정에 대한 일이면 모든 관계까지 협력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장님은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격려를 해주시고 용기와 사기를 진작시키시기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總務局長 金賢鍾 : 그럼 과장님들이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일동박수)

○委員長 申宗鉉 : 그러면 일반행정분야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연구하시고 또 나름대로 공부하신 내역을 진지하게 토의하시고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와 토의가 되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들한테 그 내역을 잘못 아신 관계가 있다손치더라도 과장님들께서 관대한 마음을 할애하셔서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일반행정분야를 먼저 질의 받겠습니다.

○幹事 黃鎬山 :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엔 추경예산을 올린것이 이 기본방향과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기획예산 과장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의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를 하여 시달된 개별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년도 지침에 편성지침이 시달되는데 대원칙이 경상비는 소모적 경비니까 가급적 줄이고 지역개발분야나 자본적 지출이 되는 투자에 많이 예산이 가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 91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그런 방향하에서 가급적 일반행정이라든가 경상적 경비는 필수불가결하고 지역 주민에게 편의가 돌아가는 것을 제외하고 내부에서 쓰는 돈은 줄이고 동청사라든지 구청사라든지 이런 관청적 비용은 오히려 삭감을 해가지고 경정재원으로 해서 투자비와 그리고 주민의 복지행정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그것이 기본 방향이고 구체적인 사항별지침은 질의하실때마다 저희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幹事 黃鎬山 :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건전한 균형예산 편성이라는 방향을 잡고 거기에 재정 팽창요인을 최소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크게 일을 그런 방향에서 이번에 추경이 11% 정도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그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기조가 팽창예산의 방지, 이것은 주민에게,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또한 물가에 영향을 주는 양측면에서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예산의 경우는 구 예산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당초 예산에서는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저희가 구민의 부담과 관련되는 비용이 추가경정예산에는 세입으로 잡히지를 않았습니

다. 그랬는데 시에서 작년도에 쓰고 남은 이월금과 시에서 교부해 준 보통조정교부금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좀 모순됩니다만은 저희 구 차원에서는 오히려 시의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보다 많은 조정교부금을 받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1%로 당초 예산에 비해서 11%상당이 이번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幹事 黃鎬山 : 그러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해야겠죠.

그런데 9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도 그제 나와있습니다.

뭐라고하냐면 엄격한 투자와 기술심사를 거쳐서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사업을 일관성과 극대화 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어느 항목이 6개월도 안되가지고 없어지고 다른데로 간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격한 재원 재분배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에는 어느 지역같은데에는 사업이 안들어간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요?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아까 기본방향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단은 총 세입을 우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세입을 먼저 확정합니다.

우리가 가용한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확정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기관이나 또는 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소위 필수경상비라고 합니다.

그것을 최소한도로 잡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지역개발비내지는 사회복지비로 배분이 됩니다.

저희 구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또 수용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을 우선순위를 사업별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건설국에서 건설 사업비는 대개 그쪽에서 다름으로 아마 건설 분야 심의하실 적에 별도로 그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억 이상은 투자심사를 본청에 의뢰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이하 공사비가 5억 이상입니다.

보상비를 제외하고 기술심사도 받고 이제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심사를 받아서 예산에 계산을 하니까 저희 소규모

모 공사는 인력이 떨어져서 그러지를 못합니다.

다 그런 과정을 걸쳐서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건설분야 심의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저보다는 전문가인 기술직 공무원들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걸로 봅니다.

○委員長 申宗鉉 : 고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황호산간사님께서 종합적으로 일반행정분야에 대해서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각 목 조서별로 또 우리 위원들이 연구하시고 방금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보신관계에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甲濟 委員 : 길음3동 김갑제위원장입니다.

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보면 통반장 일간지 예산이 4,649만4,000원이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91년 4월1일부터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님들은 오래전부터 일간지를 보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장님들은 아직 일간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91년 4월1일부터라고 계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0시40분)

○文化公報室長 丁興鎭 : 공보실장 정흥진입니다.

○黃鎬山 委員 : 똑같은 질이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宗鉉 : 그래요. 실장님 조금만 있다가 한분 더 질의 받으시고...

○黃鎬山 委員 : 문화공보실장님이죠. 통반장 일간지 부분요.

통반장 일간지로 나가는 비용이 몇 억정도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丁興鎭 : 한 2억9천정도 듭니다.

○黃鎬山 委員 : 2억9천정도 되죠. 그런데 어떤 신문이 나갑니까?

○文化公報室長 丁興鎭 : 서울신문이 나갑니다.

○黃鎬山 委員 : 그러면 다른 신문같은 걸 넣을 의향이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丁興鎭 : 글쎄,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또 구청장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구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黃鎬山 委員 : 정부지침이더라도 우리 돈을 쓰니까 심사숙고해서 다른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울신문을 반장한테 주는 데 돈을 지금 어떻게 지출합니까?

○文化公報室長 丁興鎭 : 돈은 각 동에서 동장이 배달확인서를 매월 25일 해 줍니다.

틀림없이 우리 동의 통장하고 반장 몇명한테 서울신문이 배달됐다 확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확인서를 첨부해서 재무과에 지출의뢰를 합니다.

○黃鎬山 委員 : 그런데 어느 신문, 서울신문을 전부터 하면서 반장한테가서 1천원씩 받기도 하거든요, 배달하는 애들이.

○文化公報室長 丁興鎭 :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黃鎬山 委員 : 그리고 몇부가 되냐면... 가구수가 5,166부인데 이게 5천원을 다주고 있는지 정액대로 다주고 있는지?

예산에는 정액대로 올라오는데 어떻게 일반가정도 한부 보는데도 싸게 할 수 있는데 정액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丁興鎭 : 정액대로 지불이 되죠.

3월까지의 4천원씩 됐고 4월부터는 일간지 신문이 전부 구독료가 5천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5천원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黃鎬山 委員 : 일반 신문도 1가구에서 한 5백원씩 깎아서 볼 수가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丁興鎭 : 글쎄요, 그것은 예외로 봐야겠죠.

○黃鎬山 委員 : 예외로 봅니까?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申宗鉉 : 또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金甲濟 委員 : 답변을... 아직까지 반장님들이 보급 못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丁興鎮 :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신문 구독이 지금 72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경우를 보면 통장 822명, 반장 6,364명 그래서 통장한테는 전원이 나갑니다.

822부가 나가고, 반장은 6,364명중 68%인 4,344명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합계 7,186명중에서 5,166만 나가기 때문에 통반장 전원의 71.9% 약 72%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해당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성렬위원-발언신청)

○委員長 申宗鉉 : 네. 유성렬위원님.

○俞成烈 委員 : 월곡2동 유성렬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공보부 판공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를 보면 특별공비해서 4,261만원, 기정액 3,416만원, 증감액이 845만원 그 내역서를 볼것같으면 젊음의 거리 축제 행사, 출연자 사례비, 사회자 출연팀 해가지고 거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에서 과연 젊음의 거리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더 증액을 845만원이나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이 행사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이것을 꼭 해야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申宗鉉 : 또 젊음의 거리 축제행사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丁興鎮 : 예, 유위원님 감사합니

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간단히 언급이 있으셨습시다라는 금년부터 본격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되므로 각 구마다 구특색에 맞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발위주로만 행정을 해 왔지않느냐 그럼 이제 시민의식수준, 국민의식수준도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개발이나 경제에 못지 않는 우리 국민의 정서를 함양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금년도에 문공부에서 분리 독립되서 문화부가 새로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성북구에서도 구민을 위한 구민이 다함께 웃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뭔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바로 중구에서 하고 있는 명동거리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 명동거리축제는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명동상가 상인들이 옛날의 변화했던 명동이 이제는 탄 데 밀려가지고 서울시민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의 번영을 다시한번 되찾자 그래서 자구책으로 자기네들이 명동상가에 있는 상가 대표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자체기금도 마련하고 해서 명동거리 축제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또 그와 성격은 다름니다마는 종로의 인사동 거리 축제도 역시 그런 형태이고 그다음 용산에 가면 이태원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성북구에는 그런 축제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문화의식을 좀더 확산시킬 수 있는 축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저 젊은 단견입니다마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선동지역이 사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성신여대 입구역, 돈암전철역이 됩니다.

거기에서 국민은행 뒤 태극당 뒷편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성신여사대로 통하는 그 길이 항상 젊은이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폐업소가 사실상 많았습니다.

소위 제가 듣기로는 동선동하면 그 뭐, 영계촌이다 젊은 아가씨들이 많은 곳이다.

이런 오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오명도 차제에 털어버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만끽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축제를 한번 열어보자 했는데 특히 금년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하라고 하면 그것이 좀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첫해에는 방향을 잡아주고 내년부터는 동선동지역에 있는 상가 주민들로부터 자금네들 스스로 기금을 마련해서 정립을 해서 자기네들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매년 정례화되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추진위원회의 첫회의가 구청장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격적인 토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취지로 이 축제를 한번 마련을 해보고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증가된 것이아니고 처음이게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幹事 黃鎬山 : 실장님 예산안이 확정도 안됐는데 회의를 갖습니까?

○文化公報室長 丁興鎭 : 예, 뭐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진행중인 것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한쪽에서는 일을 해야되고 만약에 이게 예산심의가 확정된 다음에 하면 시기적으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幹事 黃鎬山 : 며칠 안되요. 며칠 안돼.

○文化公報室長 丁興鎭 : 알겠습니다.

그것은 융통성을 갖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내일 예정대로 하고 아니면...

○幹事 黃鎬山 : 실장!

○委員長 申宗鉉 : 감사합니다. 황간사님은 말씀 좀 줄이시죠.

지금 현재 젊음의 거리 축제행사 이 관계가 아까도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찬반 병행해서 같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발언신청)

○李萬載 委員 :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저희 구에서도 좋은 행사안을 갖고 계신데 행사에 관한 것은 좀더 상인들도 참여를 시켜서 좀더 크게 더 나은 행사를 준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 그지역에 상가를 이루고 있는 상인들의 상인회는 조성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알고 싶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는 명동이나 이태원이나 신촌 같은 젊음의 낭만의 거리와 유사한 거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건전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宗鉉 : 네, 감사합니다. 또 그외에...
(김지운위원 발언신청)

네, 김지운위원님

○金知雲 委員 : 문화공보실장이 말이죠 이런 프로젝트가 좋은 뉴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이 인식하는 데 첫째는 문화라는 개념속에서는 교육 문화가 있고 뭐, 정치, 경제, 사회가 전부 문화는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사관이 반만년 역사의 유구한 찬란한 문화민족이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이 있고 불실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반사적인 동태를 보면 첫째는 문화공보실장의 하나의 포괄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볼때 왜 꼭 종로축제라는 것을 붙였느냐, 젊음의 축제라 그러면 젊은이들만 가는 거리 그러면 미들이나 그 나이든 사람은 갈데가 어디있나 그말입니다.

그런 것을 할때 심도있게 차트를 분석을 해서 아이디어가 그대로 사우팅 돼가지고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묻고 싶고, 또하나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과장이 계신가 하고 찾아봐도 생활체육과장님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문은 거기서는 뭐, 할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한테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성북의 전체적인 56만이면 56만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야 의료보험도 필요없다.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정부측에서 생활체육 이것, 조기축구나 배드민턴이나 케이트볼 전반적인 것이 다 체육인이 향상을 위해서 정부에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실정인데 그러면 “체육인이 날”은 왜 없느냐 이것도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총무국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스테이프라인과 라인과 스테이프가 있다면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그 행정에 전체적인 성북의 구민 전체가 무엇인가는 더 명제가 될 수 있고 뚜렷한 이슈가 되는 그런 걸로 해서 문제는 좋다.

축제 포괄적인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그 구체적인 이론상의 문제가 빅 프라미스입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시정할 용의는 있는가 여쭙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산위원 발언신청)

○幹事 黃鎬山 : 지난번의 구민회관 개관 1주년 축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문화공보실에서 사회자 초청으로 50만원씩 했습니다. 50만원씩.

그런데 젊음의 축제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1백만원으로 올라 왔어요.

가격차이가 조금있는데 1백만원 잡은 근거라도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丁興鎭 :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초청하는 사회자마다 레벨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민회관 축제 사회는 원일씨라고 하는 분이 왔었는데 사실상 그분이 나중에 대치된 분입니다.

당초에는 다른 분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가격, 초청비용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은 것이지 이것 꼭 1백만원이면 1백만원에 잡은 것은 아닙니다.

○幹事 黃鎬山 : 그냥 올렸다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文化公報室長 丁興鎭 : 구멍구구식으로 올렸다고 하기는 뭣하고 A급 사회자는 가격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걸로 잡은 건데 그다음에 또한가지 상황이 변화된 것은 구민회관 축제는 진행시간이 1시간5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리축제는 아무리 못해도 3시간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은 가격이 좀 그렇습니다.

○幹事 黃鎬山 : 그리고 또하나 묻겠습니다.

성북구에서는 문화행사가 아까 답변에서는 별로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91년도 예산액을 보면 1천만원짜리 대동제가 있어요. 그렇죠?

1천만원짜리 대동제하고 이 축제하고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文化公報室長 丁興鎭 : 당초예산서에 있는 대동제 예산은 이것이 저희 구의 행사가 아니고 서울시의 행사입니다.

서울시의 행사이기 때문에 서울 전체 축제에 각 구청에서 한 개팀이 출연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축제가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申宗鉉 : 네, 그리고...

○金知雲 委員 : 아니, 제가 질문한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뭐냐하면 젊음의 거리 축제를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성북의 문화의 날 축제”를 하든지 아니면 “체육의 날”로 한다든지 그러한 심도 있게 분석할 용의는 없느냐 또,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걸 질문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丁興鎭 : 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각 구의 특색있는 문화행사를 해야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한건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젊은이들만을 위한 축

제나, 근데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동선동 거리축제를 하려고 하는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리는 그야말로 젊은이들의 거리입니다.

평소에도 저는 젊은이들로 가득한 젊음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전구민 60만이 참여하는 그런 구민의 행사가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특색있는 곳을 선정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곳을 선정하게 된것입니다.

그곳을 젊음과 낭만의 거리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金知雲 委員 : 부연 설명 하겠습니까.

문제는 예산 1,700만원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성북구의 활성화 그것도 찬성하고 동선동에서 축제를 하는것도 찬성합니다만 성신여대는 우리나라 대학의 사학의 전당입니다.

이렇게 볼때 젊음의 축제에서 무엇을 축제하느냐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어떤 계획과 내용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丁興鎭 :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것이고, 동선동 상가 주민들도 우리가 인사동 거리축제를 따를 것인가, 이태원 축제의 성격을 띠것인가, 명동 축제와 같이 할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못드리고, 내일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합니다.

그래서 10월쯤에 행사를 가질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안에 최소한 4-5회 정도 회의를 열어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축제를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민속공연과 고적대 퍼레이드, 사물놀이, 노인회의 농악대등을 계획했고 연예인도 초청하려고 합니다.

○柳成烈 委員 : 여기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추진위원회도 형성이 될텐데 지금 행사 내용을 보면 그러한 행사들이 과연 성북구에서 필요한

행사인지 생각해보고, 사실 그거리는 행사를 하지 않아도 젊은이의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상가도 많고 노점상도 많은 걸로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리의 축제를 원하는것도 아닌것으로 내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하여 추진위원회는 누구이며 상인들이 정말 거리축제를 원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이 있음)

○委員長 申宗鉉 : 잠깐만요, 김갑제위원장님 얘기 하세요 종합적으로 하세요.

○金甲濟 委員 : 저는 이왕지사예 얘기가 나왔으니 확실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통장·반장님이나 통장님들이 다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장님들 전원에게 해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또 그 신문요금은 할인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할인을 해서 부수를 더 증가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000원을 다 지불한다고 하면 지금 한달에 1,000원을 내고 연말에 한달분 전체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내문이 오는데 배달원들이고 연말이니 여러분들이 좀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다 내는 것으로 압니다.

그럴바에는 5,000원을 다 지불하여 신문을 받아 보시는 분들에게 1,000원이라는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1,000원이 아깝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이 신문을 구독할 때에도 500원 정도는 할인이 가능한데 그 많은 부수의 신문요금을 일괄 지급하면서 왜 할인을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인을 해서 반장님들 전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반장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상에는 통·반장 전원이라고 해놓고 전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통·반장 전원에게 보급해 줄 용의가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분명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신문요금을 할인할 용의가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丁興鎭 :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전 반장님께 끌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22개구 또 전국 271개 시, 군, 구가 전부 공동 보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부와 본청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신문요금 할인 여부도 편집광고국에 담당자하고 절충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金甲濟 委員 : 할인이 안된다면 지금 독자들이 한달에 1,000원씩 부담하고 있는 것과 연말에 4,000원을 내는 것을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요.

○文化公報室長 丁興鎭 :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로 주는 배달료, 그것은 절대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어린 학생들이 고생하는데 딱하다는 마음으로 주는것은 상관없지만 강제성을 띠고 주는것은 절대 안주셔도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金甲濟 委員 : 반장님들에게 전부 혜택이 가지못하는것은 선별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丁興鎭 : 반장 전체 인원수의 68%의 예산만이 나오기 때문에 그 68%에 해당하는 4,344명의 선별은 통장들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장들에게 그명단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申宗鉉 : 유성렬위원님, 답변 요할것이 있습니까?

○柳成烈 委員 : 위원장님은 한사람이 끝나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하시고 한사람이 끝나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한 다음에 질의를 해야지 질의도 끝나자 마자 그걸 받으면 회의가 너무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申宗鉉 : 유성렬위원님 질의를 다 하신줄 알았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죠.

○柳成烈 委員 : 여기에서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위원을 형성하신 것은 좋은데 사실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는 것이고 거리 축제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동선동 거리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거리 축제를 할 경우 그 사람들에게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가 또 이 행사가 끝나면 노점상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丁興鎭 :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지역을 젊음과 낭만의 거리로 만들어서 축제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 전에 제가 팜플렛을 5천부 만들어서 상가를 중심으로 그 일대지역주민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동장으로 하여금 나누어 주도록 했는데, 동장의 의견이 여론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지역주민도 그렇고 상가 점포 주인도 그렇고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된 것입니다.

물론 모든 행정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노점상의 경우 그 지역의 노점상은 해당과에서 철거해야할 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노점상을 정리하도록 저희가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축제 기간동안 그 노점상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것은 관계관 회의때, 과장들이 전부 참석을 하는데 서로 의견을 수렴하여 노점상도 보호하고 거리축제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과 해당과장과 통합적인 안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委員長 申宗鉉 : 발언권을 끌고루 드리겠습니다

다.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황호산 간사께서 46쪽에 대하여 다시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사회자문제에 대하여 물졌는데 100만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1명이 아니라 1명이지요?

○文化公報室長 丁興鎭 : 네. 한명입니다.

○幹事 黃鎬山 : 젊음의 거리 축제 예산이 1,700만원 인데 이중 기념품 비용이 450만원으로 그 내역이 1,500원 짜리를 3,000명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0명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념품을 가지고 단가를 적게할 경우는 수량을 늘릴 수 있을텐데...

○文化公報室長 丁興鎭 : 처음 이것을 예산에 편성할 때 그냥 지나치자니 그렇고 오신분들을 위해 뭔가 흔적을 남기려니까 기념품을 계획했는데 1,500원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못한 물건도 2,000원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단가를 더내려 양을 늘리는것은 좀 어렵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조사를 다시 해서 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늘릴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申宗鉉 : 46쪽에 관한 질의가 끝난것 같은데 일반 행정에 관한 질의 없으시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일반행정은 끝내세요”하는이 있음)

그럼 일반행정은 끝내는게 좋을까요?

그러면 문화공보에 관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일반 행정분야를 더 다루겠습니다.

(11시20분)

○徐化錫 委員 : 47페이지 관의 출장 위탁교육여비가 나온다고 했죠? 5백만원.

위탁교육은 누구를 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여비는 국내여비, 그다음에 국외여비, 관내여비 이렇게 세종류로 나누어

어집니다.

47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운데 기정예산액이 7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5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 관외 출장비 위탁교육여비는 어떤 용도에 쓰이나 하면 직원들이 지방에 교육을 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서울시내가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이 아니고 내무부 연수원이나 수원이나 보사 분야, 병사 분야의 여러 분야에 교육을 가게 되는데 당초 예산에 7백만원 정도면 되겠지하고 계산을 해 뒀었는데 철도운임도 인상이 되고 여러가지 물가가 인상되어서 이것은 물론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기준으로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보상해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10만원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직원들 교육을 출장을 갈 일이 생기기 때문에 교육도 받으러 가고 그래서 5백만원을 추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徐和錫 委員 : 교육이 불특정 교육입니까?

예를 들어서 몇명이 1년에 교육을 받는가든가 그런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이 예산만 잡혀 있는데...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서울시 자체 교육 같은건 프로그램이 연중에 작성이 되는데 이것이야 각 부처별로 중앙교육은 소재지가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원만 책정해 놓았지 어느 부서에서 몇명을 차출한다는 계획은 없고 기별로 인원만 되어 있으니까 과별로, 부서별로 희망자를 받거나 안배를 합니다.

무슨 분야에 꼭 몇명 보내라 이렇게 수시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幹事 黃鎬山 : 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건축 민원 조정 평가위원회의 회비가 있는데 원래 이것이 기예산에 잡혀있었죠? 어느정도.

○監査室長 李相河 : 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한 84만원 추가되는데 또 하나는 새질서 새생활은 그전에는 저희 감사실 예산에 잡혀있지 않고 구청 포괄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 감사실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감사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감사실 예산에 잡으려고 합니다.

○幹事 黃鎬山 : 그러면 다른데에서 넘어와서 이쪽으로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그것은 놔두고...

○監査室長 李相河 :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다른데 예산은 그대로 있고 제2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幹事 黃鎬山 : 그러면 새질서, 새생활 업무는 쌍방에서 해나간다는 뜻이요?

監査室長 李相河 : 사실은 새질서, 새생활 상황실을 저희 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하기 전에는 하지 않던 업무를 작년부터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하면서 저희 감사실 옆방에 설치를 해가지고 총괄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터 있던 업무가 아니니까 예산의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지만 상황실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활동비로 해서 직원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끝날 것도 아닌 것 같고 구청 포괄 예산으로 운영을 하던 것을 저희 감사실에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자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幹事 黃鎬山 : 그러면 지금 새질서, 새생활 업무 추진을 감사실만 하고 다른데에서는 하는 것이 없습니까? 예산과장님.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새질서, 새생활 업무는 구 전직원이 같이 추진하는데 감사실에서는 그것을 총괄, 수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특판비를 계상했다는 얘기입니다.

○幹事 黃鎬山 : 그동안은 쭉 해오면서 특판비를 안 받았다는 얘기죠?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특판비를 다른 예산에서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幹事 黃鎬山 : 건축민원조정평가위원회 회비가 84만원이 추가되었거든요 원래 9백36만원이 기예산에 잡혀있어요.

그런데 84만원을 추가한 것은 인원이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수당이 높아진 것이지요?

○監査室長 李相河 : 9백36만원이 수당은... 저희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청에 관련 과장, 동장과 그의 외부인사로 해서 교수나 변호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인사가 한번 참석하면 3만원 을 지급합니다.

그 금액이 9백36만원인데 그것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참석의원들 수당으로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판공비에 보면 건축민원평가위원회 회의비가 6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때 음료수나 매주 토요일 오후 늦게 마칠때 식사도 하는 그런 회의비입니다.

금년에 6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84만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금년의 회의비로 1백44만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申宗鉉 : 48페이지에 보시면 주차단속원 5명,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總務課長 權載賢 : 지금 지역 교통과가 이번 달에 새로 생겼고 여자 주차단속원이 늘고 해서 여러가지 책상이나 비품들을 사고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申宗鉉 : 지금 현재 단속원은 몇명정도 되죠?

○總務課長 權載賢 : 17명입니다.

○李萬載 委員 : 북정안위원님 조사에 의하면 주차단속 1건당 1천원씩 지불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지불하고 있는 것이지요? 급여외에 말입니다.

○金正圭 委員 : 그 방법에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 수가 10건에서 30건 이런식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가 지역개발비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시정비과 과장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관계관이 나오시면 상세한 설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委員長 申宗鉉 : 그럼 이월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행정분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찬반토론을 분명히 하고 24일 경제수조정 및 심의확정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오늘 미처 하지 못한 질의를 다시 하실 기회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또 이런 문제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들하고 의논도 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상부상조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圭 委員 : 일반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11시30분까지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12시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도 볼 것도 있으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도 보고 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徐化錫 委員 : 51페이지 상월곡동 청사부지 사용료 1천6백96만8천3백70원인데 지금 월곡동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權載賢 : 상월곡동 청사부지가 원래 철도청 땅입니다.

그것을 현재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 구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사기전에 사용료를 덜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도청에서 조속히 내라는 독촉이 있고 해서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委員長 申宗鉉 :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국가 땅이고 시 땅이고 모든 것을 통틀어서는 국가가 아니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관계는 서로 협조 체제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구 예

산에 다소 협력이 될게 아니냐 하는데 그런 문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있으므로 확고하게 잡고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공보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文化公報室長 丁興鎮 : 제가 공보실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각 분야에서의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저 나름대로 지역신문이나 일간지에 널리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지역신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반상회때에는 의원님들의 프로필 사진을 전부 반상회보에 넣어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관하는 모든 각종 문화행사에는 의원님들을 반드시 초청하고 있으니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청을 적극 밀어 주신다는 측면에서 많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圭 委員 : 문화공보부실장님께 참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선동에서 젊음의 거리 축제라는 것의 타이틀 자체를 김지운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거기에 성북구 전체 주민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 점을 2~3일 남은 시간동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知雲 委員 : 지금 젊음의 축제거리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것을 성북의 젊음의 거리는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정리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문화공보실장에 대한 격려를 치하합니다.

○委員長 申宗鉉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반행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1차적인 관계 질의를 다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황호산 간사님으로부터 48페이지 한번 더 짚고 일반행정을 마치겠습니다.

○幹事 黃鎬山 :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48페이지에 부업알선, 대학생 견학비, 대학생 간담회 하고 해서 이번에 1백60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부업알선은 기예산에 이미 3천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3천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쓰고도 모자라서 다시 올라왔는지 아니면 할 일이 많아서 더 올린 것인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집어 넣든지 이것도 하나의 경상비라고 생각하는데 예산과장님은 이 경상비를 예산에 팽창시켰다 했는데 여기에 올라왔고 간담회를 이미 60만원이 기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또 60만원을 추가하는데 아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돈이 남았으니까 한번 더하자 이런 차원인지 지금 두번 전반에 다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한번 할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계획을 못짜고 추경있을 때마다 그냥 한번씩 더할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權載賢 : 방학기간 동안에 대학생들을 판문점 전학을 시키기 위해서 넣은 전학비이며 간담회는 당초에 계상할 때는 시작할 때부터 한번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 끝날 때에 한번더 함으로서 그사람들의 소감이라든지 학생들의 보는 우리 공무원 사회 그런 것도 청취할 수 있고 해서 시작할 때 한번, 끝날 때 한번 이렇게 간담회를 두번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더 들어간 것입니다.

○幹事 黃鎬山 :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한번, 끝날 때 한번 그런 생각도 없이... 처음에도 두번이 들어갔습니다. 기예산에 그렇죠?

○總務課長 權載賢 : 처음의 두번이라는 것은 아르바이트 학생이 상반기, 하반기 두번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2회가 되는 것이고 한번할 때 두번씩 하나까 4회가 되는 것입니다.

○幹事 黃鎬山 :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못 잡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추경이 안 되었으면 못 했겠네요?

○總務課長 權載賢 : 위원님들이 승인 안 해 주

시면 저희들이 한번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幹事 黃鎬山 : 부업알선이 기예산에는 1만원씩 해서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무슨일을 하는데 1만원씩 줘니까?

○總務課長 權載賢 :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시킵니다.

예를들면, 각종 대장정리나 장부정리, 민원보조 등 그런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幹事 黃鎬山 : 전학 장소를 판문점으로 선택한 이유라도 계십니까?

○總務課長 權載賢 : 대학생들이 남북이 처해있는 입장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가서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해서 그만큼 국가관이 확립되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幹事 黃鎬山 : 판문점을 보면 국가관이 확립됩니까?... 알겠습니다.

○委員長 申宗鉉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반행정에 대한 분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사회복지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12시가 다 됐습니다.

(김갑제위원 발언신청)

○金甲濟 委員 : 구청에 행정 차량이 티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總務課長 權載賢 : 티오가 있습니다.

○金甲濟 委員 : 몇대입니까?

○總務課長 權載賢 : 21대로 되어 있습니다.

○金甲濟 委員 : 그러면 구청장님 차가 있으시죠?

○總務課長 權載賢 : 없습니다.

○金甲濟 委員 : 없습니까. 아니, 나는 구청장님 차가 있을텐데 왜 구청장님 차량구입비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내가 티오를 물어 봤고요.

교체한다고 하면 분명코 뭐가 있어야 되겠는데 교체라는 문이 없이 1천4백만원이 올라왔고 부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차종과 제품의 메이커를 명시해 줄 수 없는지?

모든 것은 좀더 우리 한테 쉽게 확실히 이해

갈 수 있게 명확히 해 주는 쪽이 좋지 않겠나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總務課長 權載賢 : 네. 차량관계는 종전에는 구청장님께 차량운영비로 월 30만원씩 주었습니다.

주면서 구청장님이 직접 운전하면서 행사장이 다, 어디다 다니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다 해서 그러면 30만원을 주지말고 관용차량을 사서 줘라 해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을 올렸는데 차는 저희가 생각하는 프린스 2,000cc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차량비, 보험료, 각종세금 이렇게 다해 그정도가 될 것 같아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어떤 물품을 사겠다, 어떤 특정 메이커까지 예산에 올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품구매시 절차에 따라 할때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예정된 수치, 예로서 카메라를 사면 캐논 얼마짜리, 렌즈를 어디에서 사겠다.

이런 수치를 예산서에는 올릴 수 없고 행정카메라 대충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것은 시가로 어느정도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넣는데 넣다보면 물론 몇푼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집행하면 다 정산이 되는거고 예산서에 제품 규격이나 상품명까지 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申宗鉉 : 국민운동지원과장님하고 민원봉사실장님에게는 질의가 안 갈 것 같아서 우선 간사로 부터 국민운동지원과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분야를 맡았는데 오늘 북정안위원님과 서해선위원님이 사업 관계로 참석을 못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으니 과장님들 이해바랍니다.

○幹事 黃鎬山 :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이 새마을 합숙교육, 새마을 교육비, 교육여비가 6백30만원인데 이게 처음부

터 예산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인지 기예산액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인지?

○國民運動支援課長 張富次 :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관계 교육은 본청에서 내려옵니다.

금년 2월에 교육계획이 내려왔는데 여타 교육계획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었습니다.

통장교육에 대한 것은 당초 교육에 들어 있지 않고 그 당시에 본청에서 계획을 수립한 과정에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주겠다 이게 지난 6월30일 서울시로부터 계획이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전혀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이 추가된 것입니다.

○幹事 黃鎬山 :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경상비가 계속 추경이 되면 원래 91년 예산편성 기본하고 좀 달라지는 것 아니요?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기본방향이 경상비는 가급적 절감을 하고 투자비나 복지비 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당초 예산은 이미 작년도 8월달에 지침이 시달되고 거의 9월달에 작업이 되고 작년도 경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와서 작년도 12월 이전까지 확정되지않은 사항들을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경상비의 규모가 자꾸 커졌는데 그점에 대해서 예산파트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幹事 黃鎬山 : 기획예산과장님, 저희가 이것을 필요가 없다하면 못하는데 그러면 본청하고 위배되는 사항이죠. 그러면 이러한 조정금을 특별조정금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당연할 텐데 본청이 일반적으로 쓰라고 조정금을 내려놓고 이런것을 본청에서 항목을 정해져서 하면 보통 조정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거죠. 예산과장님?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네.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사업이라든지 관별 시 단위 사업은 사업 주처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보통조정교부금을 구에서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쓸수있

게 배려를 해야 되는데 더러는 이렇게 본청에서 강제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저희 보통교부금가지고 부담을 시키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산직원들은 일일이 체크를 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앞으로는 시정이 될것으로 봅니다.

○幹事 黃鎬山 : 보통조정금이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여기에 올린것이 몇가지나 되는지 알수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그것은 이런것들인데 기타 통반장 보상분야 이런것들은 그 비용이 본청에서 지침을 주긴 했으되 그것은 비용부담은 우리가 해야할 사항들입니다.

다만 어떤 구에는 통반장 보상금을 재원이 충분하니까 한달에 10만원씩 주고 어떤구는 9만원씩 주고, 통반장 보상금을 주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치구 부담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근 구간의 형평이라든지 전국적인 형평같은것, 그런게 우리가 생길수 있으니까 기준을 정해준 것입니다.

그런것들을 우리 부담으로 해야하고 이런것들을 이번에 본청 지시에 의해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 등은 별로 없습니다.

○幹事 黃鎬山 :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은 분명히 시에서 부담해야 될것 같은데...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이것도 성격상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가서 교육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우리 새마을지도자 아닙니까?

○幹事 黃鎬山 : 혜택은 우리가 보더라도 국가에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정교부금이 특별히 내려왔을 경우에는 그대로 쓸수 밖에 없지만 일반적으로 내려와서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의 말씀대로 이게 본청에서 사업을 하라고 내려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야지, 일반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쓰라고 해 놓고서 그런 지시가 내

려오면 그것 뭐 일반적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경상비가 팽창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이런것들은 평소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시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委員長 申宗鉉 : 감사합니다.

사실상 그동안 여러가지 질의를 하면서 조학래 민원봉사실장님한테 질의가 안갔는데 사실상 민원부서가 제일 말썽이 많은 관계이고, 그래서 조학래실장님이 노력하신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는 간담회를 4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실장님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 발의 관계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기회가 되는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계속 질의가 나간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 과장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위원님들도 이 더운데도 불구하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사회복지 분야의 질의를 받고자 해서 오신 여러 과장님들 같이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하시고 1시간 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1시간동안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12시03분)

(속개 13시10분)

○委員長 申宗鉉 :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순서에 입각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서는 가급적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적절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제가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 복지 분야는 기정 예산이 190억원이었고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 5억2천9백3십1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금액과 기정 예산을 합쳐 199억2천87만4천원으로써 전체 690억 예산 중에 28.7%에 해당하며 이분야에 대해서는 수 년전 부터 예산을 늘려왔고 늘려야 할 그런 분야입니다.

○委員長 申宗鉉 : 네. 감사합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이 오셨습니다.

순서를 약간 변경하여 보건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保健所長 朴魯辰 : 보건소장입니다.

삼복 더위중에 가장 더운 초복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구를 위하여 나오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申宗鉉 :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의 평소 활동은 진료적인 여건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결산회의를 통해 부탁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협조요청이 있으면 각별히 관대하게 받아주실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분 정도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장님이 질문 받고 여길 금방 떠나셔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金知雲 委員 : 총괄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가 신설되어서 그주변에 도로, 주차장으로 인하여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을 더 많이 하셨으면 하는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성북보건소가 새로 신축된 것이기 때문에 성북구민들이 이용할 때에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도 진입로도 쑥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보건소 이용에관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차도 진입로 관계도 예산을 잡아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보건소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黃鎬山 : 사회 복지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라 했지요?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28.7%입니다.

○幹事 黃鎬山 : 사회 복지비가 총 얼마입니까?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기정 예산과 추경 예산을 합쳐서 199억2천만원 입니다.

○幹事 黃鎬山 : 그러면 이번에 추가 경정된 예산과 합쳐서 사회 복지비의 주요 편성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사회 복지분야는 저소득 시민 보호 비용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청소 행정 그리고 환경, 공해문제에 편성이 됩니다. 공원 녹지라든가 그러한 분야에.

우리 성북구는 22개구 중에 영세민이 상당히 많은 구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저희구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사회복지 분야 중에 일반 사회 복지 가정 노인 부터 시작해서 유아에 이르기 까지의 복지 행정에 관한 비용 그리고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비용, 공원 녹지 분야에 비용이 약간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민이 보건 행정비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보건소장님을 모시게 된것 입니다.

○保健所長 朴魯辰 : 저희 보건소 진입로는 중앙로에서 보건소로 들어가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저번에 진입로는 일단 넓혔습니다.

진입로만 넓혔지 보건소에 들어서면 그대로 4차선 도로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들어감으로 해서 6m도로로 확장을 했는데 보건소 정문앞은 차를 주차시킬만한 넓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근처의 다섯집을 알아 봤는데 이미 보건소 앞은 건축 허가가 나서 집을 지으려고 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옆에 130평 정도 되는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金知雲 委員 : 제가 구두 설명하겠습니다.

60만 구민에게 무료 진료나 염가 진료를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확장 사업이 필요한 것 같아 말씀드린 것 입니다.

장소를 제가 잘 아는데, 일방통행해서 들어가고 일방 통행해서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주차할 장소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좀 협조를 해야 하지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保健所長 朴魯辰 : 주차장 부지 선정 작업에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申宗鉉 :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우리 채병석 예산과장님과 의논하여 보건소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게하기 위하여 이자리에 모인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참석하신 박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소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안으로 상정된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金正圭 委員 : 김정규입니다.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청소 환경, 노인복지, 교양, 자원봉사, 육아교육 등등에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을 증액해서 소외계층에 더많은 돈을 썼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형평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쪽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골목 할아버지 용품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내용이 모자, 완장, 신호기, 호루루기등 네가지 품목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를 구입하는데 가격이 2,5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품질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액수가 나왔는지 일반적인 가격과 상이하다는 판단이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李天浩 委員 : 제가 아침에 구의회를 오면서 문방구점에 들렀습니다.

전체 금액이 32만8천원인데 이 작은 물품을 구입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호루루기도 스테인레스로 된것이 문구점에서는 600원에 판매되고, 2,000원짜리는 교통순경이 쓰는 최고급품인지는 모르겠으나 교통 할아버지가 쓰시기에는 600원짜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완장도 우리가 몇년전 민방위 훈련 받을때 5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00원이면 다섯배가 상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품질에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납득하기 어려우니 책정 방법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이 할아버지들은 연세를 잡수시다보면 좀 추한것 같아서 모자와 호루라기는 제가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지만 모자를 1,000원, 1,500원짜리는 질이 안좋아서 의원여러분들도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모자 쓰신것 보셨겠지만 남이 보기에 초라하지 않은 것으로 2,500원짜리 했는데 너무 과다한것 같지는 않은데 과다하다라면 다시 알아봐서 값을 조정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니까요. 완장도 그렇구요.

○朴演洙 委員 : 지금까지 이것을 실시해 오셨는데 몇개동에 실시를 했는지 앞으로는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을 각동에 일괄적으로 분배해서 상의를 할 것인지, 제가 보는 전도 지역이 유관단체에 참여를 해서 각동의 소년, 노인들 해서 우리 길음2동에 관해서는 할아버지들이 뭘하시겠다면 자처해서 해 나간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안배가 되어서 지역의 노인들의 건강과 동네 환경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고맙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김위원님,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품비는 내려가서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다면 저희가 사회봉사활동이라 해서 할아버지들을 국민학교 애들 교문 밖에서 교통정리 하는것하고 동선1동 같이 청소년들의 범위가 많은데에서 저녁때 할아버지 골목사업, 이렇게 여가활동 범위내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전에는 골목이 5개동에 20명, 교통이 10개동에 60분이 활동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님께서 연세가 드셔서인지 할아버지들께 관심이 많으셔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할아버지들의 여가활동과 용돈을 드리는 방법을 강구해 전동으로 확대하라 하셔서 저희가 등에서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필요치 않은 동도 있어서 필요한 동만 받았더니 골목은 19개 동이, 교통은 22개 동이 들어와서 전부 41개 동입니다.

둘 다 하는 동이 있고 하나만 하는 동이 있고 해서 전부 41개동에 8분씩 하게 되어 있어 16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 동으로 다하고 있는데 1회에 5,000원씩 드리는데 1주에 2회 하기 때문에 1만원씩 해서 한달에 4만원. 많지는 않지만 할아버지들 여가선용을 위해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申宗鉉 :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복지과장님은 그런 관계를 더 활용하셔서 예산이 되는대로 효친사상을 생각해서 그런 어려운 노인분들을 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李天浩 委員 : 65페이지. 위생업소 지도 단속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신 위원님들은 이번 선거때에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 보셔서 잘 아실줄 압니다.

굉장히 적게 드는데 제가 마을금고 이사장 재직중에 크기와 양에 다르겠지만 20원씩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장에 270원이 먹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한장에 90원 풀인데 물론 색도와 여러가지 질과 양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나중에 검사를 해서 대조해 보면 알겠는데 지금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형식으로 수량을 얼마나 하며 몇장으로 하기에 200원씩 들며 3장으로 하면 이것을 한장씩 해도 될것이고 3장으로 하기전에 한장으로 취합해서 하면 적게 들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제작했는지 여쭙고 싶고 또한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계 13만7,000원부터 17만7,000원까지 특별 활동비로 나갑니다.

사정장관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로 나가는 것이니까 물론 전국적으로 나가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국영기업체나 일반기업체 다니는 사람보다 급여가 매우 적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무원보다 특혜를 받아서 특별 활동비를 이렇게 17만7,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썼으면 좋겠는데 저는 교회에 나가서 유흥업소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발소는 한달에 두번씩 다니는데 어느 동이라고, 저희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만은 이발소가 굉장히 퇴폐업소가 신문에도 나오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생검사 나온다면 벌써 정보가 새가지고 문을 닫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동네에서는 우리같은 정능1동의 권혁기 위원하고 저하고 친목회하는 회원이 이발소에 가서 그런 봉변을 당하고 돈을 더 요구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것을 시정하라고 하는 것을 며칠전에 들었습니다.

저보고 가서 고치래요.

조사해 오라면 하루에 몇 집 자신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들이 모여 이구동성으로 그랬는데 특별활동비를 받아 가지고 쓰는건지 눈감아 주는건지 아니면 미리 나팔적에 정보를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徐汶錫 :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을 했는데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겠으니가 이 사업은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하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우리가 공무수행 활동경비로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여러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건축과와 우리 위생과가 가장 부조리가 많다고 시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고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 근무실태를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 업무가 시민의 보건위생이라든가 각종 위생업소 향상이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13일 이후로 매일밤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3-4명이 매일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밤 12시까지 인데 또 밤 3시까지 본청에 팩시밀리로 지도단속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집 도착시간이 보통 3-4시인데 오전에 잠자고 오후 1시에 출근합니다.

이렇게 생활리듬이 바뀌니까 직원들 피곤이 누적되고 여러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1인당 월8-9회의 심야단속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인 유기한 민원업무가 있습니다.

허가나 인가나 신고나 각종 명예변경이다 이러한 것은 유기한 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접수시키는 날부터 현장에 나가 가지고 조사하는데 하루, 결재받는데 하루 이렇게 유기한 업무에 항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감사원에서 수시로 적시에 잘 처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후 1시에 나와서 밤 연장근무도 허다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 위생과 업무를 했던 선배들이 부조리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부인은 않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위생과 근무를 굉장히 기피하고 또 작년부터 6개월에 한번씩 위생업무를 로테이션시켜 직원을 바꿉니다.

바꾸다 보니 업무의 연계성도 없어지고 또 나는 얼마 있으면 갈테지하는 무사안일이라든가 자신이 소신을 갖고 처리하려는 사명감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인가 사정장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공무수행 활동비로 직원들 사기양양책으로 주라해서 이번 특판비하고 그것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수용비 수수료 문제, 활동, 조사, 단속,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성북구 관내에 약4,500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대중음식점이 2,500개, 유흥음식점이 14개, 기타 다방이라든지 전자오락실등이 4,50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범, 자율, 지도의 3분류를 해서 그들의 건전영업을 유도하고 우리가 사실 4,500개소를 한정된 인원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류를 해놓고 지도업소에 대해서만 잦은 점검을 통해서 그 업소를 건전업소로 유도시키자는 차원이 위생업소 3분류사업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유인물이 판매 200원이면 너무 많지않나 하시는데 이것이 스티카입니다.

위원님들 가시다 보면 대중음식점, 자율업소, 지도업소라고 붙어 있는 것을 보실텐데 이것은 보통 유인물고 달라 비바람에 탈색이나 퇴색이 되지않는 비닐 입힌 특수지로 되어 있어서 이 인쇄물이 200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업무추진 특별활동비 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월50만원으로 계상되어 하반기 12월달까지 해서 3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상반기에 전국 일제단속을 10회했고 서울시 일제단속을 4회 했습니다.

전국일제 단속이란 내무부에서 지시되어 가지고 전국을 일제 단속하는 것입니다.

이때 참석하는 분이 교육구청, 경찰, 구청, 시청, 전부터 일괄적인 단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도 많습니다.

자율위원이라든가 모니터요원이라든가 학부모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종 무허가 업소라든가 영업정지 업소들을 경찰서에 고발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서를 꾸며서 서울지청에 송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지검, 성북서, 종암서, 북부교육청, 구청, 한전같은 경우는 단전 단수를 의뢰합니다.

또 수도사업소, 본청특명반 이런것하고 업무추진 활동비로 해서 들어간 것이고 우리 위생관련 업체가 12개 있습니다.

그래서 월1회 그 사람들과 협조를 하고 부탁할 것은 부탁하고 이런 긴밀한 협조체제를 추진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건전영업 자율실천 운영위원회라든지, 부정불량식품 신고모니터 요원들이 있는데 그들의 격려비로 월50만원을 산정을해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사실 위생과 업무가 비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민폐를 끼치는 것도 없지않았습니다.

어떤 관과 민과 대비해서 어떤 위생관련 회의를 하면 당연히 그 협회에서 과장한테 저녁이나 차를 산다든가 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화 시대의 공복으로서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분들을 위해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미에서 특별비가 50만원 잡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天浩 委員 :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령해 가지고 일을 한다면 결과가 유흥업소나 퇴폐업소가 버젓이 남아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것은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衛生課長 徐汶錫 :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데이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야간심야업소 단속을 하는

것이 자체단속반이라 해서 이제까지 구청에서 추진을 하는 1개반, 구청장 직속으로 된 특명기동반 1개반 해서 2개반 15명씩 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적발한 업소가 376개소가 있는데 고발이 63건, 허가취소 영업정지가 100개소가 있었습니다.

시설개수 및 시정경고가 무려 211개가 되었고 특명반에서는 250건을 적발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북구 관내 위생업소중 거의다 시정경고, 시설개수, 영업정지를 당해도 그 기간 이외에 또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속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국민들의 성향이라든가 의식수준에도 크게 따라가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폐 이용업소도 우리가 정보를 받아 경찰과 합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수렴해서 더한층 열심히 일할것을 이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金正圭 委員 : 조금전에 자료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말씀같은데 전체적으로 해서 각동 업종별등등 구분이 다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카피해서 내일이라도 한부씩 돌려줬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는가를 알아야 할 사항인것 같고 또 저희 각동에서는 어떤 업소에서 얼마만큼 위반해서 과연 얼마만큼 벌금을 물었는가 등등도 참고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 해주시기 바라면서 사실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아두면 큰돈인데 그 돈을 받으셔서 원래 기본뜻대로 잘 이용해서서 여러분의 책임을 다 해 주실것을 제가 끝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申宗鉉 : 위생과장님께 더 묻겠는데요, 지금 업무추진비 또 그외에 지도단속할 수 있는 활동비등이 쪽 나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에서

예를 들어 하루 저녁 나가게 되면 얼마나 어떻게 지급하게 됩니까?

○衛生課長 徐汶錫 : 우리가 명령을 내면 그 사람들이 저녁 9시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저나 계장이 그날 단속지침을 교육시킵니다.

예를 들어 그 전날 신고를 받은 업소에 대한 정보를 주고 야간에 다니다보면 신변의 위협을 당하게 되므로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킵니다.

업주와의 트라블이라든가, 그러다보면 손님들이 왜 단속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을 시비를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요령을 교육시키고 1인당 1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1,000원은 야식비로, 7,000원은 택시비로, 2,000원은 그 이튿날에 목욕비해서 10,000원으로 계상했는데 직원들은 이 10,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신변위협도 있고 피곤한데 그걸 짜증스러워하는 것이거든요.

○委員長 申宗鉉 : 짜증스러우면 공무원 그만둬야죠.

활동비는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현재 위생과 공무원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사실상 근무의 수당은 나가죠? 야간근무를 하면?

○衛生課長 徐汶錫 : 근무의 수당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야간근무때도 10,000원 그것만 받아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위생과장으로 온게 한 3개월 됐습니다.

공무원 10년하는 동안 저도 밖에서 보는 위생과를 굉장히 부조리가 있고 그 사람들이 자질이 부족해서 자꾸 질책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온지 4-5개월밖에 안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위생과 직원이 15-17만원 더 받는다고 하셨는데 급양비로 15일 계상되는데 그것은 월 8-9일 국내여비 문제는 1인당 5만4,000원인데 그것을 계상한 동기는 우리 직원들이 한달에 출장을 몇번 나가다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직원1인당 근20일 가량을 매일 출장을 나

가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규정상 1일 출장비가 3,500원입니다.

그러면 20일간 실비 보상하면 7만원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미비했기 때문에 위생과 직원들에 대한 여러가지 부조리 요인이 있지 않았나 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번 이 문제가 됐을때도 제가 굉장히 이제까지 안된것을 계상되어 여러위원들의 많은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결책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13시50분)

○委員長 申宗鉉 :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 같은 공무원인데도 더 희생 봉사 노력하시는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기틀이 올바르게 잡히려면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전공무원이 기반을 이루어야 한다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할 말은 없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도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안나간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것 같아요.

우리의원님들 주장이 합리성을 가지는것이 작년말 말단 행정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쉬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위생업소 단속 때문에 쉬지도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 일을 하셨으면 저녁에는 쉬고 저녁에 일을 하셨으면 낮에 쉬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관계는 지금 과장님이 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월별로 지급하지 말고 그날 그날 단속 나가는 공무원에게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으면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직원이 16명이라고 합시다.

A라는 직원은 사실상 똑같은 행동을 못했는데 월급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14만7천원 내지

17만원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위생관련 공무원은 일을 하든 않든 봉급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衛生課長 徐汶錫 : 위생과나 민원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다른과의 직원들에 비해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부조리가 생기는것이 아니고 업무처리 성질상 금품에의 유혹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도단속을 나갔는데 잘 봐달라는 식으로 해서 생기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금품에의 유혹에 초연해 질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상당히 민주화되어서 허가나 인가와 같은 행정행위가 과거에는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요즘은 당연한 나의 권리를 찾는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리의 폭도 많이 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6공화국에 들어서 공무원의 봉급 수준도 많이 향상 되었기 때문에 77년도에 제가 총무과에 근무할 때에 비하여 이직율도 많이 감소한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내가 열심히 근무해서 정계나 파면을 당하지 않겠다하는 풍토가 어느정도 공직사회에 전파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는 비리와 부조리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委員長 申宗鉉 : 네. 감사합니다.

근무외에 복명을 달고 명을 받았을때는 근무급여의 수당이 나갑니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공무원의 수당 규정에 보면 시간외 근무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작년까지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직급마다 약간 틀리기는 하지만 5급 이하 직

원들에게는 시간당 약 1,500원이 됩니다.

이것을 월20시간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규 근무시간이외의 근무 시간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申宗鉉 : 사무간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申宗鉉 : 간담회에서 나왔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밖에 질문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成烈 委員 : 위생과장님의 말씀과 예산과장님의 말씀이 약간 틀린것 같습니다.

위생과장님의 말씀은 일비의 시간외 근무 수당이 없고 특별회비 관계로 10,000원씩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예산과장님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1시간당 1,500원씩 준다고 하는데 가령 위생과에서 야간근무를 하게되면 밤 9시, 8시가 되어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 2시, 3시 심지어는 밤 2시에 들어와도 상부에 업무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약 5시간 정도는 될것입니다.

그렇게 근무하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과 직원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왜 별도로 10,000원씩 지급하는 것인지 원인이 무엇이며 그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5급이하에 대해서 8월달까지 월20시간 분이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월 20시간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1시간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위생과장 말씀은 1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계속 근무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 다른 실, 과에는 월 20시간중 하루에 20시간을 다 쓸 수 없고 하루에 5시간을 근무한다든지 또 5시간 근무해서 며칠 동안에는 일이 없어 일찍 들어 가고 해서 지급이 되는것입니다.

위생과장이 너무 상세히 설명을 하다보니까 혼선이 온것 같습니다.

사실 위생과는 공무원 사회에서 부조리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금품에의 유혹을 받아도 뿌리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우를 해 주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부조리를 근절시키고 적발되었을 경우 간과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委員長 申宗鉉 :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천호의원님과 안돈수의 원님께서 시민국장님과 예산과장님을 모시고 질의한 내역과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의사제장님도 차출되어서 여러번 나가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잠 못주무시고 위생업소 단속 근무하셔서 일비 지급 받는것 당연합니다.

그외에 단속을 하든 하지않든 단속 공무원에게 월비가 지급되는것에 대한 이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4일 확정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의 좋은 말씀 있으실 것으로 믿고 다른 중요한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幹事 黃鎬山 :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57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이 1억5백13만5천원이예요 상당히 많은 추가경정 예산인데 전부 합치면 과에서 8억9천만원 정도 쓰고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에서 올린 추가경정 예산이 1억5천만원 정도 되니까 이 사항중에 실제로는 어느정도 이번 추가경정에 올랐으며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추가경정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한 기본 골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경정안을 올릴때 신규 사업비는 노인정 신축비 8천7백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계속 사업으로 된것입니다.

약 3억9천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그내역은 할아버지 사회봉사 활동 확대비가 있고 동선2동 구청사를 탁아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구민들의 요청으로 거기에 따른 인건비, 공사비가 주요 골자입니다.

○幹事 黃鎬山 : 1억5천만원 정도 된다면 30개동을 배분하는데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별로 그런것 같지 않군요.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신규 사업은 한가지밖에 없고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부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에 특별히 치우친것은 없습니다.

○幹事 黃鎬山 : 그러면 추경이 안올라 가면 계속 사업을 못합니까?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아니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모자라고 나중에 떨어진 지시도 있고 건축설계가 끝나왔는데 물가가 너무 상승해서 그 예산으로는 집을 지을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추경을 올렸습니다.

○幹事 黃鎬山 : 그리고 골목 교통 할아버지는 후생 복지적인 차원이지요.

그런데 과장님도 보셨는지 몰라도 할아버지들이 노란 깃발을 들고 서 계십니다.

후생복지를 할 경우 그분들의 후생복지가 있어야 하는데, 물론 어떤 분은 신이 나서 하기도 하겠지만 어떤분은 전봇대에 기대서 정말 피곤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후생복지의 차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이지요.

후생복지 차원이면 굳이 굶은일을 시키지 말아야 할텐데... 몇 시간씩 합니까?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그것을 동별로 할당을 했다는데 그런것이 아니고 원하시는 분들로 하는데 선별할 때에도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로 하라고 회의때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幹事 黃鎬山 : 아니 그러면 신체적으로 약간 결함이 있으면 후생복지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방향으로 후생복지비를 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62쪽입니다. 인수 탁아원 신축비로 부족비만 올라왔는데 원래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1억2천만원입니다.

○幹事 黃鎬山 : 처음에 예산을 잡을때는 1억2천으로 할수 있다고 잡은 것이죠?

그런데 6개월 지나고 보니까 2천9백만원이 모자랄것 같다해서 다시 추경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제상을 했는데 2천9백만원이 나 착오가 있어요?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 건물 지을때 평당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과에서 넘어온 설계도를 보니까 저희가 책정한 금액보다 8백6십2만4천원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도저히 건축을 못한다고 하여 더 추가된 것이고 담장, 대문, 조경, 수도, 전기등등 해서 2천1백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幹事 黃鎬山 : 가정복지 과장님 이것을 안하면 완공을 못 시키겠네요? 꼭 있어야 완공 시키겠군요.

(14시10분)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네. 길음2동의 위치가 상당히 나쁩니다.

예를 들면 덤프트럭이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 건물을 짓다 보니까 너무 건축비가 싸가지고 요즘은 자꾸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할 때에 이것을 참조해 달라고 여러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집이 잘 지어질 것 같습니다.

○幹事 黃鎬山 : 그리고 월곡동에 사회복지관인가 있죠? 뭐라고 하던가요. 큰건물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종합사회복지관요.

○幹事 黃鎬山 : 복지관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朴聖百 :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幹事 黃鎬山 : 가정복지과에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탁아원이 있습니다.

탁아원이 있는데 그 탁아원도 가정복지과에서 맡죠?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종합복지관에 있는 탁아원은 저희가 관할을 하지 않습니다.

○幹事 黃鎬山 : 시에서 내려오죠?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네.

○幹事 黃鎬山 : 시에서 내려오더라도 돈은 여기를 거쳐서 가는 것입니까? 시에서 직접 갑니까?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아니예요. 사회복지과를 거쳐서 갑니다.

○幹事 黃鎬山 : 탁아원도?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네.

○幹事 黃鎬山 :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委員長 申宗鉉 : 네. 그외에 좋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간담회 네번을 통해서 축조심의까지 하다시피 했습니다.

질문이 많이 가시는 과장님들한테는 여러가지 괴로움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실상 저희 위원님들이 증지를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

또 아까도 호루라기 하나가 몇백원 안가는 것이지만 왜 이천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똑 같은 상황에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들 중에서도 몇억정도 몇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절의가 안가느냐 하는 얘기가 여러 과장님들 잘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고 여기에 대한 신축성 있는 이러한 예산을 다루자하는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는 적정 예산을 짜야된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좋은 질문 받겠습니다.

네. 김정규 위원님.

○金正圭 委員 : 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정, 공부방, 비품구입비, 성북2동으로 되어 있군요.

제한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가격이 500만원인데요 공부방에 어떠한 것이, 물건사는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것 같아서... 그러나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액수는 나와있지만 공부방 비품비로서이 5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물건을 구입하는데 드는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공부방 비품에 대해서는 6명이 앉는 독서대를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6명이 앉는 독서대하고 사무용품 책상 등등인것 이것 500만원은 작년에 저희가 삼선1동 공부방을 완공을 볼때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독서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柳成烈 委員 : 여기에 관계없이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에 가면 할머니 방이 있고 할아버지 방이 있죠?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저희가 노인정을 할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다 있는걸로 간주를 하는데요.

옛날부터 있던데를 보니까 할머니가 안계신데가 더러 있어요.

○柳成烈 委員 : 그래서 더러보면은 할머니가 계시는 방에는 취사기구를 구입을 해 가지고 취사를 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더군요.

근데 가상 예를 들어서 가스렌지를 사야 되는 데 돈이 없다 얘깁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그 예산을 각동에서 올리면은 그 예산을 줄수있는 겁니까?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정에서는 취사하고 취침은 할수가 없습니다.

보사부 노인정 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취사하고 취침은 할수가 없는데 지금 그것을 강력히 못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서 반발이 너무 많이 와요.

우리가 하루종일 와서 노는데 우리가 점심도 못먹느냐, 우리가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려고 하는데 봐 달라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수 없는건데 저희가 지금 봐 드리는건데 그 돈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구에서.

저희가 다른 운영비는 지원을 해 드려도 그런것 구입하는 것은 못 드립니다.

○柳成烈 委員 : 그러면 그 운영비를 다소 도움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건 과외로 묻기 때문에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주로 보면 노인정 할머니, 할아버지의 비용이 많이 들더군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주로 특별 회비를 많이 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과연 노인정에는 년이라든지 월이라든지 예산이 책정해서 주기적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그것도 결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노인정은 저희가 다달이 평수로 갈라서 운영비를 드립니다.

노인정 평수가 5명이하는 월40,000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6명에서 10명이하는 월50,000원을 드리고 11명에서 15명이하는 월60,000원을 드립니다.

16명에서 20명이하는 70,000원을 드리고 21명에서 25명이하까지는 월80,000원, 26명 이상은 월90,000원을 드립니다.

다달이 드립니다.

○柳成烈 委員 : 이것은 이렇게 주고 나면은 26명 이상은 90,000원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운영비에 속하는 것입니까? 무엇에 속하는 것입니까? 26명 이상은 90,000원을 드리는데 90,000을 할아버지들이 받아다가 이것을 재산세를 내는건

지 아니면 음료수대로 드리는건지 그 항목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사실은 노인정 운영비, 위원님들이 동에서 상당히 노인정에 협조를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동네 유지분들한테 자꾸 손을 알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취지로 드리는데 월40,000정도면 얼마 안되지만 5명이니까 몇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황호산간사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일종의 노인정 후생비입니다.

월90,000원 같으면 여름에는 상당히 많이 남아요.

이걸로 연탄도 때고 기름도 때십시오하는데 할아버지들은 이것이 나오면 그걸 그대로 쓰시고 겨울이 되면 동네유지분들한테 연탄 좀 사달라고 하고 구에서는 구대로 연탄을 사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신문대, 전화요금, 이런 공공요금을 제외하고는 잡수시는데 쓰는걸로 보시면 됩니다.

○委員長 申宗鉉 : 그이외에 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黃鎬山 : 자산취득비죠. 자산취득비가 500만원이라고 김정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예산에도 잡혀있죠?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500만원 잡혔습니다.

○幹事 黃鎬山 : 그러면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500만원만 이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죠?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본예산에 500만원 있고 해서 1,000만원되는데 저희가 앞서 독서대, 죄송하지만 값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幹事 黃鎬山 : 왜냐하면 추경에 안올라오면 이번에 500만원 않고 지난번 기예산 500만원가지고 정리를 할 겁니다.

아마 안올라왔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맨처음에 평수가 30평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장 선생님이 요구하는게 운동장

면적하고 편편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한층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幹事 黃鎬山 : 과장님, 학교장선생님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냥 들어 줘니까?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그 땅을 교육위원회에서 땅좀 받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요구조건이 또 가서 보더라도 운동장 높이가 우리하고 낮으면은 애들한테도 위험할 것이고 해서 편편하게 옆에 파출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委員長 申宗鉉 : 질문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圭 委員 : 59페이지를 다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성북2동 노인정, 공부방 신축부분이라고 해가지고 기예산이 1억1,034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서 1억5,496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회의때 지난번에 답변이 토목과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건축비와부대공사를 보면은 부대공사에 대한 금액이 1평방미터당에 200만원이라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보고 참조를 해서 저희가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하겠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넘겨주시고 그렇지않으면 부분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고자 합니다.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한가지 저희가 부탁드리는것이 저희가 노인정하고 공부방을 짓다보니까 저희는 사실 건축부분에 상당히 아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때 건축과에다가 설계의뢰를 내고 응벽같은것은 토목과에다가 저희가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때 나름대로 토목기사하고 같이 현장에 와 봤는데 위원님께서 삼청터널을 들어가는 길로 거기까지는 안가고 성북동쪽에 가다보면은 성북국민학교가 나옵니다.

축대위에 높이 있는데. 저희가 축대있는 그 밑 부분을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목과 기사가 댄것을 나중에 자세히 제가 유인물로 드리겠지만 웅벽의 길이가 가로 30미터, 세로가 10미터해서 40미터로 봐서 1미터당 100만원씩 잡아서 이게 4,000만원입니다. 웅벽이.

그리고 토목공사가 1루베가 가로, 세로 3.3제곱미터 속에 있는 흙을 1루베라고 한답니다.

그 안에 있는 흙이 대략 3,000루베가 된다고 합니다.

1루베를 움직이는데 2만원 돈이 소요된대요.

그래서 이것이 6,000만원이고 거기에 하수도 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막바로 그 앞에 댄대면 돈 얼마 안드는데, 여기 하수도비가 2,000만원입니다.

뭐가 많이 드느냐면 앞에는 물을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안상이고 물을수 없는 관계가 있어서 그 하수도를 학교로 해서 학교 정문 앞에 나가면 큰 하수도 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280미터를 물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것이 1미터당 80,000원씩 해서 2,000만원 대략 1억2,000만원인데 나머지는 거기에 전기시설비, 조경비 그런것과 우선 2,300만원 정도 됩니다.

○金正圭 委員 : 지금 이 현장에 기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현장은 어느 정도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안됐습니다.

○金正圭 委員 : 전혀 안된 상태입니까? 예산만 잡아놓고 돈만 그대로 두고.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맨 처음에는 노인정이 성북동 길을 확장할 하는데 헐리는 쪽에 노인정이 있었습니다.

거기 노인정에서 자꾸 길을 넓히려고 하니 노인정 할아버지들이 자꾸 오세요.

우리 노인정 헐리면 어떻하느냐고 그래서 작년엔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땅 사기가 어렵고 관에서 땅을 산다면 집 주인이 더 받을려고 그러는지 땅을 상당히 고르다가 못고르고 있던 차제에 옆에 파출소가 들어가게 되어서 다시 교육위원회와 절충을 해서 토지 매입비를 사용을 안하고 그 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金正圭 委員 :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했겠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어떠한 방법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 장에게 다시한번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演洙 委員 : 길음 복지회관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이 어디쯤 되는지 또 지금부터 시행하면 어느정도 대충 시작을 할수 있는 건지 또한 우리 인수로 도로 포장 공사가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될런지 길음동 619번지 여기도 언제쯤 될런지 그것이 궁금하구요 한가지는 우리 황간사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수 탁아소 문제 과연 제가 볼때는 이 경비가 조금 더 책정이 되어서 1억4,900만원 정도가 잡혀져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복지과장님이 상당히 고지대에 리어커도 들어 갈수 없는 상당히 걱정되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경비가 부족될런지 않을런지 그렇게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는 우리 위원님들이 길음2동을 와보셔서 잘 아시는 분은 아실겁니다.

우리 구청의 주무과장님들이 계시고 한테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릴려고 그러합니다.

길음2동에는 어느 식당 하나도 넓은 음식점이 없습니다.

단20명이 유관단체 회의를 한테도 길음1동 아니면 길음3동 다른동으로 나가야만이 회의를 할수있는 그런 아주 복잡하고 꾸불꾸불한 고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탁아소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것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유관단체장들은 지금 현재 길음2동에 3층에 유아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번 오시는 구청장님들마다 그 유아원을 탄 곳으로 보내자고 한없이 애원도 하고 사정도 하고 여러지역에 관한 얘기를 누누히 했습니다.

그랬으나 길음2동 다른 전체의 유아원을 대지를 확보할 대지가 없어요.

길음2동에는 유아원을 꼭 그 2층으로 내보내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길음2동 동사무소 3층을 우리 회관으로 써야 되겠고 또 이 극빈자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많이 살고 있고 성북 30개동 중에도 제일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없는 사람은 불러다가 결혼식을 시키고 우리 길음2동에는 환경이 곤란해서 자녀를 둘셋 낳고도 결혼식을 못한 가정도 많습니

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저에 대한 서위원님과 같이 어려운 동네를 꼭 많은 정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꼭 그리워서 정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박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동사무소가 보니까 너무 좁아서 탁아원을 다 옮겨갈 겁니다.

염려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朴演洙 委員 : 복지관 문제...

○社會福祉課長 朴聖百 :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음종합복지관은 길음3동에 소지한 905번지입니다.

부지는 문공부 국립극장 자재창고로 쓰던건데 지금 문화부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는 코오롱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코오롱에서 구해다가 기부 채납했는데 거기서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는 지하1층에다가 지상3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부터 착수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우기가 따르고 현재 건립 허가신청이 7월10일 구청건축과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가 나면은 8월5, 6일부터 정상으로 건축 가동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演洙 委員 : 인수로와 619번지 도로확장관계...

(14시30분)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내일 지역개발분야에서 토목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겠습니까마는 인수로 확장공사와 길음동 619번지 도로확장공사 이 두건은 의회에서 승인이 되는대로 최단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내일 구체적인 설명은 토목과장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幹事 黃鎬山 :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4억정도 되죠? 그런데 이번에 팔렸죠?

○社會福祉課長 朴聖百 : 네. 그렇습니다.

○幹事 黃鎬山 : 그래서 한 7억정도 남았는데 자산취득비에서 많이 잘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월곡동의 종합복지관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방향같은 것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朴聖百 : 그것은 실비하고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幹事 黃鎬山 : 아. 그러면 구에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朴聖百 : 네. 구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幹事 黃鎬山 : 그런데 이것이 성북구 관내에 있는 것인데 그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朴聖百 : 생명의 전화는 시설허가가 86년에 나가지고 건립된 복지법인입니다.

대지가 602평에 건물이 지하 1층과 지상 4층

8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내용은 무료직업 안내와 근로 청소년 야학, 탁아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14명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 보조는 연간 한 2억8천 1백만원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1억9천5백만원 그리고 실비가 4천3백만원 국고를 4천3백만원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幹事 黃鎬山 : 그런데 성북관내에 있고 한 800명정도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한 14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朴聖百 : 여기는 지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幹事 黃鎬山 : 그래서 왜 그렇게 적절히 활용 못하는가 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볼때는 시에서 하더라도 여기서 건의사항 같은 것들이 올라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물론 시 운영이지만 그래도 이 구관내에 있으니가 그런점이 지적이 되고 또 건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800명이 되고 6층정도 올라가는데 14명이 근무를 한다면 놀리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宗鉉 : 지금 몇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신 과장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

방금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엔 처음이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과장님들을 다 모시게 되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24일 같은 경우는 꼭 우리 과장님들을 모셔야 될 분들만 모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엔 장기적인 시간에 이렇게 초대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가급적이면 빨리 끝낼려고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니다.

(속개 15시00분)

○委員長 申宗鉉 : 시간을 할애를 하셨는데 좀 휴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3시30분에 끝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유성렬 위원님 가정복지과에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成烈 委員 : 사회복지과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委員長 申宗鉉 : 아니, 사회복지과장님이 내려가셨어요. 가정복지과장님만 남으셨어요.

○柳成烈 委員 : 가정복지과장님은 안돼요.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이에요.

○委員長 申宗鉉 : 그러면 24일 또 해 주시면 됩니다.

그의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萬載 委員 : 제가 질문할까요? 62페이지 보게 되면 구 동선2동 청사 시설보수라해서 5천만원이라는 것을 시설보수비로 쓰나본데 얼마나 시설보수를 잘 하는데 5천만원씩 드는지 보수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선2동 구청사가 전부다 76.6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평당 보수하는데 65만3천원이 대략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했습니다. 이것, 아직 설계도 못했어요. 이것, 설계들어갈거예요.

이게 통과가 되어야만이 설계에 들어 갑니다.

○柳成烈 委員 : 보수비가 63만원요. 평당?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네. 약 65만 잡았어요.

이 탁아원은 다른 건물과 틀려서 밑을 전부다 온돌파이프를 물어야 합니다.

○李萬載 委員 : 보수하는 내용을 대강, 그러면 우선 어떤 것을 합니까?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네?

○李萬載 委員 : 보수 내용요.

○李天浩 委員 : 바닥에다가 온돌파이프를 해

요?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네. 바닥에다요.

○金甲濟 委員 : 난방은 온돌식으로 합니까?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네. 온돌식으로요.

○閔應說 委員 : 평수가 몇평이나 되요?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76.6평이에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사용하는 방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柳成烈 委員 : 그 탁아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유아원에서 탁아소로 바뀌어 지금은 뭐라고 그랬죠? 명칭이?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어린이집요.

○柳成烈 委員 : 어린이집.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체 각동에서 공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운영과정이 그러니까 아동들은 탁아를 시키는데 전부 동마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23군데가 있습니다. 23개소요.

그리고 없는동이 약 11개동이 되는데 탁아소에서 뭐를 하느냐 하면 영세 맞벌이부부 그 자녀를 위해서 저희가 받기는 0세부터 취학전 어린이를 전부 보육할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2세까지를 영아라고 치고 3세부터 취학전 어린이를 유아라고 쳐가지고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는 7명당 교사가 한명이고 유아는 15명당 교사가 한명씩 들어가게 됩니다.

○金正圭 委員 : 그러면 탁아를 하는 측에서는 제반 거기에 대한 경비부담은 없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탁아원 운영체에서요?

○柳成烈 委員 : 교사. 즉 말하자면 보모.

○委員長 申宗鉉 : 아니, 애기를 맡기는 측에서

○金正圭 委員 : 애기를 맡기는 측에서는 어떤 월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건가 정부차원에서요.

○李天浩 委員 : 무료냐, 유료냐 이것 아니예요?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돈을 안 받다보면 조

금 그런 무리가 있고 해서 돈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감면자가 있고 경감자가 있고 해서 보육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료는 경감아동이 영아가 월 2만6천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아가 2만1천원, 일반아동이 영아가 4만6천원, 유아가 4만1천원 이렇게 수업료를 받고 있습니다.

○金正圭 委員 : 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시설복구비가 평당 65만원정도를 잡으셨다고 그랬는데 물론 잡는데는 여유를 갖고 잡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요.

조금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결국 이 문제는 다음 검사위원회에서든가 어떤 절차가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좀 과다하게 잡혔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閔應說 委員 : 거기서 한가지 더 물어 보겠는데요.

76.6평이라는 것이 전체 수리 부분입니까? 그 외 수리부분은 없나요?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네. 전부 수리부분이에요.

○閔應說 委員 : 그러면 만일 80명을 잡고 대충 계산해서 한 5천만원밖에 안된다.

생각하는데... 아 그렇게 되네요.

○幹事 黃鎬山 : 그런데 있잖아요.

방하나면 몇평이나 됩니까? 3평, 4평, 5평되고 한 10평짜리된다해도.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어린이집요?

○幹事 黃鎬山 : 아니, 보통방에 온돌을 놓고 돌아가는 것을 놓더라도 10평, 20평하는데도 한 2~3백만원, 많이 들어도 5백만원이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67만원선이면 10명할때 7백60만원정도 든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네?

○幹事 黃鎬山 : 그래 상당히 많이 잡혔다는 얘기에요.

○李天浩 委員 : 평당 65만원입니까? 우리가 집

을 지어봐도 온돌만 하는데 자체에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金正圭 委員 :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책정이. 지금

○金甲濟 委員 : 온돌만이 아니겠지요?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네. 여기 여러가지가 있어요.

건물내, 외 보수도 하고 도색도 하고 출입문도 다고쳐야 되고 위원님들 한테 부탁이, 이 어린이 집을 저희가 정릉3동도 보수를 했었는데 여기서 깎이고 저기서 깎이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진짜 보수할 돈이 없어가지고 보수는 해야되겠고 그러니까 진짜 나가서 보면 보수한게 마음에 안들을 때가 많아요.

그런게 있어요.

○金正圭 委員 : 그러니까 원천보수공사를 주실 때 부터 잘 꺾야만이 공사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幹事 黃鎬山 :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탁아 업무를 하는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적도 있지만 지금 2만6천원 이러는데 그렇게 받고도 구청에서 돈을 받아요.

그 탁아원이 한 80%정도 받죠.

그리고 1인당 탁아원이, 어느 탁아원이 50명이 정원이라면 2백50만원씩 한달 평균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5만원씩 지원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서 4만6천원짜리 받으면 한명 가르치는데 9만6천원씩 든다는 얘기에요.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일전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때서부터 이러저리 나가서 조사를 해보는데 조금 정원초과한데가 몇군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정리는 했어요. 했고 저희 관내는 상당히 저소득층이 많이 살아서 일반아동이 얼마 없습니다.

나가보면 일반아동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이 80%보조는 전부 교사들의 인건비에 들어 갑니다.

○幹事 黃鎬山 : 그리고 탁아원의 원장님이 성북구 내에 살지 않으면서 탁아원 원장님이 오시는 경향이 있는 모양인데...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 네. 저, 한사람이 있는 데요.

그이는 여기가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태화사회 기독교복지법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월급받는 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박연수위원 발언신청)

○朴演洙 委員 : 63페이지에 전기안전점검대행 수수료다 해서 86만8천5백60원 이것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각 동에 보게되면 야간에 방범등, 보안등 말입니다.

보안등, 방범등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방범등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즘 우기철이고 장마철이어서 불이 안 들어오고 고장나는 울이 많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주민들에게 제가 동네에서 들어볼 적에 신고해 놓고 동사무소에서 3개월이 되도 빨리 달아 주지 않는다는 불평을 들어오고 있고 해서 그 관리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경비인데 보건소장님이 가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보건소 건물이 구청하고 같이 있다가 작년에 신축해가지고 종암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는 정기적으로 매월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전기안전공사로 부터.

그래서 대행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청사를 짓다보니까 대부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키폰수수료라든지 누락분들이 있어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제상됐어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요구부서에서 전년도까지 보전소하고는 그게 같이 있었으니까 이런걸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던거라서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누락시켰다가 보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나오고 대행수수료 달라고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이런 것이 제상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방법등, 보안등이 고장이 나면 신속하게 고쳐주지 못하는 것은 토목과에 기전제가 있어서 기전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내일 토목과장이 오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방법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시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동에다가 배정을 하고 있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의 예산은 상당히 단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등이 그래서 이것을 적시에 보수를 할려고 그래도 단가가 낮다보니까 적시에 보수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여론이 상당히 비등을 하고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내일 토목과장님으로 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朴員洙 委員 :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申宗鉉 : 네, 감사합니다. 또 김갑제위원장님.

○柳成烈 委員 :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구청에 전기 총,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력 기존전력이 몇키로나 되어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그것도 총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찾아 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중에 있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柳成烈 委員 : 그런데 이것이 그래요.

저희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

기 때문에 안전점검 그것은 뭐, 고정으로 나가는 금액이죠.

그런데 연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이것을 증감시켰다는 것은 거기에 무슨 건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역시 구청의 관할 귀속된 부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뭐, 있다가 갔다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 만약에 100키로가 있다.

90키로 이상 99키로 이상은 안전공사에서 와서 매월 점검을 하죠.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런 공과금 자체는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수료가 올랐다면 이것 증액이 되겠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 산출기초 보시면 이제 본래 부족한 것은 6개월이라든지 추가분해야 되는데 12로 표시한 것은 저희가 이사하는 관계로 못해서 이런 실수입니다.

실수로 누락이 된 것입니다.

(손드는 이 있음)

○委員長 申宗鉉 : 네, 김갑제 위원님.

○金甲濟 委員 : 청소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성북구 관내에 청소는 대체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이 쓰레기처리가 민원중에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정예산, 추경예산에서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적은 액수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역사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가 알고 싶고 또한가지 덧붙여 얘기하자면 쓰레기가 물론 가정오물쓰레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살다보니까 주택수리도 해야 되고 등등해서 가정오물이 아닌 쓰레기가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민과 미화원간에 상당한 시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한테 얘기를 해 봤더니 무슨 다른 조치를 해서 그것은 별도의 돈을 받더라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강구 안 된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급히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연탄 아궁이 하나 고쳐도 쓰레기가 보통 한 5바케스 내지 10바케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가정오물이 아니라고 청소원들은 안 가져갑니다.

물론 무겁고 여려가지가 어렵죠.

그러면 그것을 집문 대문밖에다 한 일주일 열흘씩 쌓아 놓으니까 아주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오물쓰레기 처리하는 다른 과정으로라도 빨리 무슨 방법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청소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清掃課長 李昌泰 : 네,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자치구 업무중에서도 고유사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뭐, 자고나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여려가지 문제는 적환장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작환장이 꼭 있어야 하지만 여려가지 악취라든가 냄새 그로 인해서 여려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현장에 대해서 액수가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재정문제라든가 여려가지의 문제도 예의 검토해서 우리가 연차적인 사업을 집행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구가 15만 가구에 한 5백40여명 됩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1일에 평균적으로 해서 1천4백70톤이 되는데 이것을 한사람당 기준해서 따져볼때는 2.7키로그램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은 저희가 환경미화원 6백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60대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청소가 잘되고 있는냐의 문

제는 환경미화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물론 개중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청소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청소, 우리 미화원들이 수고한 것은 가정에서 배출한 연탄재나 기타 쓰레기를 수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이외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잔재라든가 잔토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서 치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시20분)

○金甲濟 委員 : 그걸 모르는바는 아닌데 사실 이렇습니다.

만약에 많이 발생을 하면은 잔토처리할 수 있는 차를 불러다가 처리할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지금 우리 지역 같은데는 아직도 연탄을 때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연탄아궁이라는 것은 가끔 한번씩 뜯어 고쳐도 잔토가 몇 바케스씩 나와요.

근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차량을 불러서 처리할 방법도 없고 또 환경미화원은 무집기도 하고 자기 과정이 아니라고 해서 안가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차라리 무슨 부피가 얼마에 더 처리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라도 해결하지.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대문 앞에 일주일씩 열흘씩 쌓아 놓으니까 보기도 안좋고 먼지도 나고 여려가지가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을 나는 미화원들이 청소를 안한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미화원들의 애로도 알고 나무라지는 않으나 최소한도 주무과에서 그것도 어떻게해서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동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걸 연구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은 지 몇달인데도 아직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제가 듣기로는 월곡동에다가 종합적환장을 만든다고 구청장님도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언제쯤 계획해서 언제쯤 준공이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清掃課長 李昌泰 : 생활쓰레기 문제는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는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원인자에게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월곡1동, 3동, 4동의 적환장이 지금 생명의 전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도로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정비해서 한꺼번에 하기위해 지금 예산에 요청을 해 놔는데 그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위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월곡1동 67번지 104호에 한 4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는 사유지가 한필지가 있고 국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보상을 해서 사고요 국유지는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유지가 87명인데 위치로서는 월곡동 67번지 104호, 국유지는 85명인데 월곡동 67-103호, 96-138호 2필지가 거기에 하천 부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에 공중변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공중변소를 제하고 평수가 한 153평쯤 됩니다.

한 300명 되는데요 월곡1동과 월곡3동, 월곡4동에 적환장을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은 여러가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과정이 완료되고 그런다면은 9월까지 우리가 건물보상을 끝내고 10월까지의 거기 무허가 건물이 8동이 있어요.

그것까지 철거한 다음에 11월까지 공사를 완

료하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점은 보상이 문제가 되는데 협의보상이 잘 이루어진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협의보상이 이루어 지지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가서 토지수용법이라든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용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신청하는 이 있음)

○委員長 申宗鉉 : 이만재위원님 말씀하시죠.

○李萬載 委員 : 청소과장님한테 여쭙보겠습니다.

청소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줄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문제, 그러니까 청소를 하고 난 후에 샤워할 수 있는 샤워시설 같은 것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골일을 하다보면 참이 나오는데 우리미화원 아저씨들의 참거리라도 주고 있는지 복지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느정도 해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清掃課長 李昌泰 : 저희 환경미화원수는 말씀드렸다시피 608명이 있습니다.

근속 연수별로 보면 3년 미만이 92명, 3년이상 6년미만이 92명, 6년부터 9년 사이가 66명, 제일 많은 것이 9년부터 11년 사이에 근무한 분이 140명 12년부터 15년이 66명 이렇게 해 가지고 총 608명이 있습니다.

급료를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시장과 노조위원장간에 노사합의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제일 많은 9년내지 12년 근속자가 모든 수당이라든가 시간외 수당 합해 가지고 13가지가 나갑니다.

9년 내지 12년 근속기준할때 65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봉급수준은 모든것을 합해서 연평균으로 따졌을때 65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휴식시설을 말씀하셨는데요 금년에 휴식시설을 시장님 지침에 의해서 전통에 1개소씩 설치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대책을 위해서 각동에 1개소씩 설치하라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총 30개동중에 7개 동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3개소를 금년에 제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개소에 대해서는 설치가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최소한도 공개 입찰절차를 끝내면 8월중에는 13개소에서는 설치가 되고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한 9-10월 쯤에는 전부 설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복지대책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융자하는 문제,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봄과 가을에 체련대회를 개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기양양 대책으로.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라든가 추석 연말때에는 위로회를 개최하여 격려금을 전달함과 동시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미화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朴演洙 委員 : 우리가 모든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요는 미화원들의 치우 처리를 못해서 우리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부터 쓰레기 봉투가 동별로 반별로 나오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또 각동의 어떤 분들은 느끼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은 쓰레기를 빨리 치우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게 되면 치워주지 않으니깐 얼마큼 대포값을 공공연하게 달라니 주는 가정도 많아요.

이것을 어디다가 자랑할수도 없고 어디가서 얘기할수도 없고 요는 빨리 치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적절하게 치우개선을 넘어서 정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가 의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길음2동에 펌프장 앞에 와 보

셨을거예요.

길음2동 펌프장 앞에는 쓰지 못하는 리어커 몇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그것을 빨리 치우든지,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임의대로 치울수가 없답니다.

빨리 거두어서 처리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앞에 보게 되면 쓰지 못하는 리어커도 많이 서있고 리어커에 짐 실은 것도 있고 지나다니는 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거기다가 밤 늦게는 아주 점잖치 못한 손님들이 불 알을 보기 때문에 향기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어렵겠지만 꼭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清掃課長 朴昌泰 :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비닐봉지 문제를 말씀하셨고 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길음2동 적환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종류별로 수거 일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연탄재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날 수거하고 연탄 이외에 기타 쓰레기는 화요일과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수거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종류별로 포장방법은 이동식 용기에 넣게 되어 있구요 기타 쓰레기는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강요된 사항은 아니고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비닐봉지는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가정에서 사서 본인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분리수거 정책에 의해서 고지대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우리가 지원하느 고지대 취약지역이라든가 분리수거 우수 시범지역에 2만6,725세대가 되는데요 각동별로 고루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구당 월20매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사실상 원칙적인 면에

서는 팀은 받지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委員長 申宗鉉 : 네. 감사합니다.

(발언신청하는 이 있음)

네. 김정규위원님.

○金正圭 委員 :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월곡동 삼청로 정비라는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기본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5,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어야만 됐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金一椀 :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월곡동 삼청로 정비는 금년 상반기에 이 지점이 어딘가하면 월곡국민학교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존도로가 있는데 토목과에서 2미터를 확장을 했습니다.

산쪽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사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면정비하고 가로수를 심고 그 위에 가보면 저희가 팔각정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팔각정에서 장위중학쪽으로 기존 오솔길이 나 있습니다.

오솔길을 그냥 놔두고 보니까 비만 오면 흙이 밑으로 흘러 내리고 해서 오솔길을 정비를 해가지고 동덕여대 뒤에 보면은 토목과에서 또 주차장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정비하는데 까지 연결해서 산책로 전부를 한 2미터 폭으로 확장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공정별로 말씀을 드리면 삼청로 정비하는데에 석축쌓기가 약20평방미터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방미터당 10만원해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면 정비하는것이 700평방미터해서 평방미터당 그 바닥정비가 상반기 본 예산에 부

족되기 때문에 추경에다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1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월곡국민학교쪽의 도로 확장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예산별로 나누면 1,500만원 정도, 그래서 그 부분에는 석축으로 보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목식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상한것이 1,980주를 계상을 했습니다.

사면 정비를 하고 또 개나리 사이하고 가로수는 느티나무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대 뒤편 사면이 낮아서 노출된데에는 잣나무 200여주를 심어서 녹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화목림인 겹철쪽을 250주를 심어서 아울러 단장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正圭 委員 :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역이 추경에 관한것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一椀 : 네. 그렇습니다.

○金正圭 委員 : 그러면 기본 예산을 짜실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一椀 : 기본 예산에서는 저희 구 예산이 한정이 되다가 보니까 이것은 뒤로 밀려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金正圭 委員 : 그러니까 언젠가 추경됐을때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公園綠地課長 金一椀 : 네. 그렇습니다.

만약 추경이 안되면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金正圭 委員 :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만은 머리에 다 안들어왔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金一椀 : 알겠습니다.

○柳成烈 委員 :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월곡공원이라는 자체가 총예산이 11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이 우리 단독 성북구청 예산이 아니고 특별 예산을 빼다가 구청장님이 공원을 설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5,000만원 들어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거기가 어떻게 된 내역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金一椈 : 지금 위원님께서 11억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은건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공원 기본계획에 보편은 과거에 채석장을 하다가 남은 적지가 있습니다.

상월곡동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축구를 할수있을 정도에 운동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그걸 별도로 저희 청장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11억을 얻어 온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그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15시40분)

○柳成烈 委員 : 그러면 월곡 공원을 위해서 작년도 구청 예산에서 11억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세웠던게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一椈 : 네. 있습니다.

○柳成烈 委員 : 여기 70쪽 위에 예산액이 녹지관리 시설비 이것인데 나는 지금껏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하면 월곡 공원을 시설하는데 있어서 11억을 교부금에서 충당을 했던지 어떻게 했던지 가히 11억 속에 도로및 포장공사 이런것이 다 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다른 얘기가 나와서 5천만원씩 여기다 증감한것이 아니고 미리 예산을 세워서 이 큰 공사를 하는데 이런 분야까지 추경에 집어 넣어야 된다는 것은 그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公園綠地課長 金一椈 : 월곡 근린공원에 90년도 부터 저희 구청에서 투자를 했는데, 월곡4동에 소요된 예산이 7천9백6십2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목과에서 동덕여대 뒷편에 주차장및 진입로 개설을 4억9천의 예산규모로 공

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에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근린공원내 팔각정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단청까지 마무리 되었는데 소유 예산이 1억5천8백4십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산책로를 1억5천을 들여서 토목과에서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또 나머지 산책로 조경, 산책로 올라가는 길에 산들을 쌓는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팔각정 주변과 산책로 주변에 토목과에서 지금 공원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1억7천만원 됩니다.

하반기에 또 시공해야 할것이 다목적 운동장과 진입로 개설이 시에서 받은 11억으로 공사가 착수되겠습니다.

○委員長 申宗鉉 :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황호산 간사로부터 최종 마무리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幹事 黃鎬山 :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6천5백만원인데 성북구 관내에 공원이 몇개나 됩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一椈 : 국립공원이 1개소 있고 근린공원이 구민회관내 위치하고 있는 성북 근린공원 종암동 뒷산 근린공원 월곡동에 있는 월곡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幹事 黃鎬山 : 나머지도 여러 주민이 사용하는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一椈 : 어린이 공원이 15개소 있습니다.

○幹事 黃鎬山 :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린것에서 삭감된것은 없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一椈 : 삭감된것은 삼선교쪽으로 가면 동소문동 동사무소 앞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동소문동 재개발지구로 올라가는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공원일부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암반으로 되어 가지고

삼선교 로터리에서 보면 보기 흉할 정도로 축대가 이단, 삼단으로 쌓았습니다.

그것도 좀 지반을 낮춰 가지고 공원을 정비하려고 추경에 일단은 올렸는데 삭감되고 내년도 본 예산에 다시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幹事 黃鎬山 : 6천5백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여기에 못지않게 이용하는 조그만 공원이 있어요.

석관동과 상월곡동 사이에 있는데 가 보셨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一根 : 상월곡동 동사무소 주변 말입니까? 산 밑에 있는것 말입니까?

○幹事 黃鎬山 : 주민들이 거기 많이 이용을 해요.

비가오면 좋지 않은데도 이번 추경예산에 생 각 안해보았어요?

○公園綠地課長 金一根 : 그곳은 청량리 근린공원입니다.

저희 관내와 동대문 관내와 겹쳐있고, 일부 지역에는...

○幹事 黃鎬山 : 상월곡동 뒤가 어떻게 청량리입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一根 : 거기 근린공원 명칭이 청량리 근린공원입니다.

그곳이 동대문과 성북이 겹쳐 있는 곳으로 고 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개의 근린공원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 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안기 부가 더러 차지하고 있고 또 동대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89년도 기본계획때 그 지역은 기본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幹事 黃鎬山 : 민위원님 그곳이 동대문 관할 이에요?

○閔應說 委員 :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소방도로를 내달라고 작년부터 요청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안 들어가 있더라구요.

저쪽하고 합의를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幹事 黃鎬山 : 공사를 너무 큰것만 해서 그래요.

○委員長 申宗鉉 : 환경분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69쪽 매연 측정기 구입비가 1천5백만원인데 이것과 소형 자동차 단속을 위하여 구입하려고 하는것에 대하여 어떤방법으로 어떤 계획에 의하여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李洪達 :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매연 관계는 작년까지는 자동차 엔진의 정상여부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운수계의 업무였는데 금년 2월달에 환경보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정책 기본법, 대기 환경 보존법, 수질 환경 보존법, 소음 진동 규제법, 폐기물 처리법, 공해 분쟁 조정법이 6개법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대구의 폐놀사건으로 환경오염에 대하여 국민들도 매우 불안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하여 매연 단속을 하는데 사업용은 환경청에서 직접하고있고 비사업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하게되어 저희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저희 직원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정원이 8명인데 1명은 청와대로 파견근무 나가고 계, 과장을 제외하면 5명입니다.

그래서 휘발유 가스 차량 단속은 이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배출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유 차량 단속을 위한 매연측정기가 도시정비과에서 86년도에 구입한것으로 고장나서 사용할 수가 없고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두사람이면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기계가 가장 최신형이거든요.

또, 경유 가스 차량의 매연 단속은 그 처분이

매우 강합니다.

41%가 될때에는 공장에서 보수를 받고 근거 서류를 제출받고 있으며 56%가 되면 고발조치하여 벌과금을 내게하고 있으며 60%이상일때는 사용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매연 측정기 구입비를 올린것입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건은 환경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구별로 차량 구입비를 추경에 반영하도록 지시가 된 상태입니다.

이 차량은 그레이스나 베스타와 같은 형태의 승합 중형으로 휘발유를 쓰는 차량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단속기제는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있는 것이 성능이 좋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委員長 申宗鉉 : 네. 감사합니다.

○幹事 黃鎬山 :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내에서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에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지않나 그말씀입니다.

○環境課長 李洪達 : 질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예를 들어 환경이다 공해다 하면 지금 공해원인이 수질환경 문제, 대기환경 문제, 소음진동환경문제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도 있는데, 저희는 수질관계 문제는 목욕탕과 약품을 사용하는 사진 필름 현상소, 세차장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하고 배출시설 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오염 문제는 저희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저희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것은 자동차 매연에 관계된 것 밖에 없습니다.

○幹事 黃鎬山 : 이번 추경에 올린 3천1백만원의 대부분이 차량 매연을 측정하려고 하는것 같

은데, 물론 이것은 어느 구나 다 같을것입니다만은 우리 석관동 지역에는 방진막 같은것도 환경과에서 설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회사에서 하는 것이 좋겠지만 회사에서 못 할 경우 구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아침에 세차해서 차를 세워 놓고 저녁때 손으로 긁어 보면 글씨가 써진답니다.

그 정도면 환경에 대해서 예산을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에 매연 단속과 차량 단속에만 배정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金正圭 委員 : 지난 15일 구청장님이 석관동을 방문하셨을때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는데 소음이 너무 많아서, 오래전부터 합의하고 있는 관계라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하기로 구청장님께서 약속하고 가신바가 있습니다.

○幹事 黃鎬山 : 방음벽이 아니고 방진막입니다.

○環境課長 李洪達 :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리지요.

연탄공장에 대한 공해 문제는 88년2월에 진폐증 환자가 발생한 사실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후에 매우 강하게 대두되어 저희가 연탄회사 3개사와 4개 공장에 방진 시설, 살수 시설에 적극 투자하여 88년에서 90년 3개년에 걸쳐 15억8천2백만원을 들여 시설을 완비했습니다 지금 공장에 가보시면 철로변을 따라서 방진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금년 5월달에 시 환경 1과 계장과 직원이 4개 공장에 대한 공해 방지 시설 일제감정을 한적이 있습니다.

집진시설, 살수시설, 방진막, 세륜시설, 적환장 덮개 등 이런것들을 총 점검했는데 완벽하다는 판정이었습니다.

미세한 연탄가루가 하나도 안나오도록 할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도 정기적으로 공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환경 보건 연구원에 의뢰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항상 기준치를 내려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申宗鉉 :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과장님들, 여러 의원님들 장장 6시간이 넘도록 심의하신것에 대하여 다시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16시00분)

參席委員名單

金甲濟	金正圭	金知雲	金炯九	閔應說
朴演洙	徐化錫	申宗鉉	柳成烈	李萬載
李天浩	黃鎬山			

出席公務員名單

總務局長	金賢鍾
保健所長	朴魯辰
企劃豫算課長	蔡炳錫
文化公報室長	丁興鎭
監查室長	李相河
總務課長	權載賢
國民運動支援課長	張富次
家庭福祉課長	尹惠子
衛生課長	徐汶錫
社會福祉課長	朴聖百
清掃課長	李昌泰
公園綠地課長	金一根
環境課長	李洪達

會議錄署名

委員長 申宗鉉